

제 2 장 수의 체계

이 장에서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사용하던 수의 더하기, 곱하기, 순서 등을 체계적으로 공부한다. 먼저 $0 = \emptyset$, $1 = \{0\}$, $2 = \{0, 1\}$ 등으로 자연수를 정의하고, 자연수 사이의 더하기 및 곱하기를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에 입각하여 교환법칙, 결합법칙, 배분법칙 등을 증명한다. 자연수의 순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성질은 임의의 자연수집합은 최소값을 가진다는 것인데, 물론 자연수의 정의에 입각하여 이를 증명한다. 정수를 두 자연수의 차이로 이해하기 위하여, 자연수의 순서쌍들에 적절한 동치관계를 부여함으로써 정수집합을 만든다. 마찬가지로 정수의 순서쌍들에 적절한 동치관계를 부여하여 유리수집합을 만드는데, 유리수에서는 가감승제가 자유로워진다. 유리수체는 가장 작은 순서체이다. 이 장에서는 유리수로부터 실수를 구성하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는데, 하나는 데데킨트가 고안한 절단을 이용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칸토르가 고안한 코시수열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 방법은 1872년 같은 해에 각각 발표되었다. 이 두가지 방법은 사실상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마지막 절에서 임의의 완비순서체는 항상 같음을 보인다.

2002년 1학기

집합과 수리논리
강의록 제 2 장

서울대학교 수학과
계승혁

2002년 3월 3일 게시
2002년 7월 8일 수정
33쪽~78쪽

2.1. 자연수

집합 A 에 대하여 새로운 집합 A^+ 를 다음

$$A^+ = A \cup \{A\}$$

으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서, 공집합부터 출발하여 $0 = \emptyset$ 이라 두고,
 $1 = 0^+, 2 = 1^+, 3 = 2^+, \dots$ 등으로 정의하면 다음

$$\begin{aligned} 0 &= \emptyset \\ 1 &= 0^+ = 0 \cup \{0\} = \emptyset \cup \{0\} = \{0\} \\ 2 &= 1^+ = 1 \cup \{1\} = \{0\} \cup \{1\} = \{0, 1\} \\ 3 &= 2^+ = 2 \cup \{2\} = \{0, 1\} \cup \{2\} = \{0, 1, 2\} \\ &\dots \end{aligned} \tag{1}$$

과 같이 된다. 다음 두 가지 성질

$$\emptyset \in \mathcal{A}, \quad A \in \mathcal{A} \implies A^+ \in \mathcal{A} \tag{2}$$

을 가지는 집합 \mathcal{A} 들 전체의 교집합을 \mathbb{N} 이라 쓰고, 이 집합의 원소들을 자연수라 부른다. 집합 \mathbb{N} 이 성질 (2) 를 가지는 것은 바로 확인된다. 따라서 다음 정리의 (가), (나) 가 성립하고, (1) 과 같이 정의된 집합 $0, 1, 2, 3, \dots$ 는 자연수이다. 또한, $n^+ = n \cup \{n\}$ 은 공집합이 아니므로 다음 정리의 (다) 도 당연하다. 다음 정리에 열거된 다섯 가지 성질은 **빠아노**⁽¹⁾ 공리계라 불리운다.

정리 2.1.1. 집합 \mathbb{N} 은 다음 성질들을 만족한다.

- (가) $0 \in \mathbb{N}$.
- (나) $n \in \mathbb{N} \implies n^+ \in \mathbb{N}$.
- (다) 임의의 $n \in \mathbb{N}$ 에 대하여 $n^+ \neq 0$ 이다.
- (라) 자연수들의 집합 $X \subset \mathbb{N}$ 가 다음 두 성질

$$0 \in X, \quad n \in X \implies n^+ \in X \tag{3}$$

을 만족하면 $X = \mathbb{N}$ 이다.

(1) Giuseppe Peano (1958~1932), 이탈리아 수학자. Turin 에서 공부하고 활동하였다.

(마) 만일 $m, n \in \mathbb{N}$ 에 대하여 $m^+ = n^+$ 이면 $m = n$ 이다.

만일 $X \subset \mathbb{N}$ 가 성질 (2)를 가지면 당연히 $X = \mathbb{N}$ 이 되는데, 이를 다시 쓴 것이 (라)이다. 이는 수학적 귀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이다. 만일 자연수 $n \in \mathbb{N}$ 에 관한 명제 $P(n)$ 이 있을 때, $P(n)$ 이 성립하는 자연수 $n \in \mathbb{N}$ 들의 집합을 X 라 두자. 만일 $P(0)$ 이 성립함을 알고, $P(n) \implies P(n^+)$ 을 보이면 X 가 성질 (3)을 만족한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X = \mathbb{N}$ 인데, 이는 임의의 자연수 $n \in \mathbb{N}$ 에 대하여 $P(n)$ 이 성립한다는 뜻이다.

이제, 정리 2.1.1의 (마)를 증명해 보자. 우선,

$$n \in n^+ = m^+ = m \cup \{m\}$$

이므로 $n \in m$ 이거나 $n = m$ 이다.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m \in n$ 이거나 $n = m$ 이다. 따라서, 다음

$$n \in \mathbb{N}, x \in n \implies x \subset n \quad (4)$$

을 증명하면 $n \subset m$ 과 $m \subset n$ 이 성립하여 증명이 끝난다. 이제 (4)를 증명하기 위하여

$$X = \{n \in \mathbb{N} : x \in n \implies x \subset n\}$$

이라 두자. 먼저 $0 \in X$ 임은 분명하다. 즉, $x \in \emptyset \implies x \subset \emptyset$ 은 옳은 명제이다. 이제 수학적 귀납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n \in X$ 라 가정하자. 만일 $x \in n^+ = n \cup \{n\}$ 이면 $x \in n$ 이거나 $x = n$ 이다. 만일 $x = n$ 이면 $x = n \subset n^+$ 이고, $x \in n$ 이면 귀납법 가정에 의하여 $x \subset n$ 이므로 $x \subset n \subset n^+$ 가 성립한다. 따라서 $X = \mathbb{N}$ 이고 (4)가 증명되었다.

다음 정리는 집합 X 의 원소 $\gamma(0), \gamma(1), \gamma(2), \dots$ 가 특정 점화식을 만족하도록 귀납적으로 정의할 수 있음을 말해 주는데, 자연수의 연산을 정의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리 2.1.2. 집합 X 의 한 원소 $a \in X$ 과 함수 $f : X \rightarrow X$ 에 대하여, 다음 성질

(가) $\gamma(0) = a$,

(나) 임의의 $n \in \mathbb{N}$ 에 대하여 $\gamma(n^+) = f(\gamma(n))$ 이 성립한다

을 만족하는 함수 $\gamma : \mathbb{N} \rightarrow X$ 가 유일하게 존재한다.

증명: 먼저, (가) 와 (나) 를 동시에 만족하는 함수 γ_1 과 γ_2 가 있다고 가정하고,

$$X = \{n \in \mathbb{N} : \gamma_1(n) = \gamma_2(n)\}$$

이라 두자. 먼저 (가) 에 의하여 $0 \in X$ 이다. 만일 $n \in X$ 이면

$$\gamma_1(n^+) = f(\gamma_1(n)) = f(\gamma_2(n)) = \gamma_2(n^+)$$

이므로 $n^+ \in X$ 이다. 따라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하여 $X = \mathbb{N}$ 이고, 임의의 $n \in \mathbb{N}$ 에 대하여 $\gamma_1(n) = \gamma_2(n)$ 임을 알 수 있다.

이제, 존재성을 보이기 위하여 다음 성질

$$(0, a) \in A, \quad (n, x) \in A \implies (n^+, f(x)) \in A \quad (5)$$

을 만족하는 $A \subset \mathbb{N} \times X$ 전체의 집합을 \mathcal{A} 라 두면 $\mathbb{N} \times X \in \mathcal{A}$ 이므로 \mathcal{A} 는 비어 있지 않다. 이제, $\gamma = \bigcap \mathcal{A}$ 라 두자. 만일 $\gamma \subset \mathbb{N} \times X$ 가 함수이면 다음

$$\begin{aligned} \gamma(n) = x &\implies (n, x) \in \gamma \\ &\implies (n^+, f(x)) \in \gamma \\ &\implies \gamma(n^+) = f(x) = f(\gamma(n)) \end{aligned}$$

이 성립하므로, $\gamma \subset \mathbb{N} \times X$ 가 함수임을 보이면 증명이 끝난다.

이를 위하여 다시

$$\mathcal{X} = \{n \in \mathbb{N} : (n, x) \in \gamma \text{ 를 만족하는 } x \in X \text{ 가 유일하게 존재한다}\}$$

라 두고 귀납법을 사용한다. 만일 $0 \notin \mathcal{X}$ 라면 $(0, b) \in \gamma$, $b \neq a$ 인 $b \in X$ 가 존재한다. 그런데 $b \neq a$ 이므로, 정리 2.1.1 (다) 에 의하여 $\gamma \setminus \{(0, b)\} \subset \mathbb{N} \times X$ 역시 성질 (5) 를 만족한다. 이는 $\gamma = \bigcap \mathcal{A}$ 에 모순이다. 따라서, $0 \in \mathcal{X}$ 이다. 이제 $n \in \mathcal{X}$ 이지만 $n^+ \notin \mathcal{X}$ 라 가정하자. 그러면 $(n^+, f(x)) \in \gamma$ 이므로 $(n^+, y) \in \gamma$, $y \neq f(x)$ 인 $y \in X$ 가 존재한다. 이번에도 역시 $\gamma \setminus \{(n^+, y)\} \in \mathcal{A}$ 임을 보이면 $n \in \mathcal{X} \implies n^+ \in \mathcal{X}$ 가 증명되고, 따라서 모든 증명이 끝난다.

우선 $n^+ \neq 0$ 이므로 $(0, a) \in \gamma \setminus \{(n^+, y)\}$ 이다. 이제 $(m, z) \in \gamma \setminus \{(n^+, y)\}$ 라 가정하자. 만일 $m = n$ 이면 $z = x$ 이고 또한 $y \neq f(x)$ 이므로 $(m^+, f(z)) = (n^+, f(x)) \in \gamma \setminus \{(n^+, y)\}$ 임을 알 수 있다. 만일 $m \neq n$ 이면 정리 2.1.1 (마) 에 의하여 $m^+ \neq n^+$ 이고, 따라서 $(m^+, f(z)) \in \gamma \setminus \{(n^+, y)\}$ 이다. \square

정리 2.1.2 를 적용하면, 각 자연수 $m \in \mathbb{N}$ 에 대하여

$$\gamma_m(0) = m, \quad n \in \mathbb{N} \implies \gamma_m(n^+) = [\gamma_m(n)]^+$$

를 만족하는 함수 $\gamma_m : \mathbb{N} \rightarrow \mathbb{N}$ 이 유일하게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제, 두 자연수의 더하기를

$$m + n = \gamma_m(n), \quad m, n \in \mathbb{N}$$

이라 정의하면

$$m + 0 = m, \quad m + n^+ = (m + n)^+, \quad m, n \in \mathbb{N}$$

이 성립한다. 결합법칙, 교환법칙, 항등원에 관한 것들을 증명하기 앞서

$$n^+ = 1 + n, \quad n \in \mathbb{N}$$

임을 먼저 보이자. 먼저 $0^+ = 1 = 1 + 0$ 이다. 이 등식이 자연수 n 에 대하여 성립한다 가정하면 $(n^+)^+ = (1 + n)^+ = 1 + n^+$ 이 성립하므로, 수

학적 귀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곱하기를 정의하는 것도 정리 2.1.2를 이용한다. 먼저, 각 자연수 $m \in \mathbb{N}$ 에 대하여

$$\delta_m(0) = 0, \quad n \in \mathbb{N} \implies \delta_m(n^+) = \delta_m(n) + m$$

이 성립하는 함수 $\delta_m : \mathbb{N} \rightarrow \mathbb{N}$ 을 잡은 후에,

$$mn = \delta_m(n), \quad m, n \in \mathbb{N}$$

이라 정의한다. 그러면

$$m0 = 0, \quad mn^+ = mn + m, \quad m, n \in \mathbb{N}$$

이 성립한다.

정리 2.1.3. 임의의 $m, n, k \in \mathbb{N}$ 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

(가) $0 + n = n$, $(m + n) + k = m + (n + k)$ 및 $m + n = n + m$ 이다.

(나) $0n = 0$, $1n = n$, $(mn)k = m(nk)$ 및 $mn = nm$ 이다.

(다) $m(n + k) = mn + mk$ 및 $(n + k)m = nm + km$ 이다.

모든 증명은 귀납법을 사용한다. 먼저 $0 + 0 = 0$ 은 이미 알고 있고, $0 + n = n$ 이면 $0 + n^+ = (0 + n)^+ = n^+$ 이므로, (가)의 첫째 명제가 증명된다. 둘째 명제는 m, n 을 고정하고 k 에 관한 귀납법을 사용하면 된다. 셋째 명제 역시 m 을 고정하고 n 에 관한 귀납법을 사용하면 된다. 명제 (나), (다) 역시 수학적 귀납법을 사용하여 증명한다.

문제 2.1.1. 정리 2.1.3을 증명하여라.

문제 2.1.2. 정리 2.1.2를 이용하여 m^n 을 정의하고, 다음 연산 법칙들

$$m^{n+k} = m^n m^k, \quad (mn)^k = m^k n^k, \quad (m^n)^k = m^{nk}$$

을 증명하여라.

이제 집합 \mathbb{N} 에 순서를 정의하고 이 절을 맺기로 한다. 두 자연수 $m, n \in \mathbb{N}$ 에 대하여

$$m \leq n \iff m \in n \text{ 혹은 } m = n$$

이라 정의한다. 먼저 $m \leq m$ 임은 당연하다. 또한 $m \leq n$ 과 $n \leq m$ 이 동시에 성립한다 가정하자. 만일 $m \neq n$ 이면 $m \in n$ 과 $n \in m$ 이고, (4)에 의하여 $m \subset n$, $n \subset m$ 이 성립므로 $m = n$ 이 된다. 이제, $m \leq n$, $n \leq k$ 라 가정하자. 그러면 다음

$$m \in n, n \in k \quad m \in n, n = k \quad m = n, n \in k \quad m = n, n = k$$

네 가지 경우가 생긴다. 처음 세 경우에는 $m \in k$ 가 성립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m = k$ 가 성립하므로 $m \leq k$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leq 는 순서관계가 된다. 다음 정리는 자연수집합에 정의된 순서관계의 핵심적인 성질이다. 두 자연수 $m, n \in \mathbb{N}$ 이 $m \leq n$ 이면서 $m \neq n$ 일 때, $m < n$ 이라 쓴다. 따라서, $m < n \iff m \in n$ 이다. 특히, $m \in m^+$ 이므로 $m < m^+$ 이다.

정리 2.1.4. 비어 있지 않은 자연수들의 집합은 최소 원소를 가진다.

증명: 비어 있지 않은 자연수들의 집합 $A \subset \mathbb{N}$ 가 최소 원소를 가지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X = \{n \in \mathbb{N} : m \in A \implies n \leq m\}$$

이라 두자. 만일 $k \in X \cap A$ 이면 k 는 A 의 최소 원소가 되므로 $X \cap A = \emptyset$ 이어야 한다. 이제 귀납법을 이용하여 $X = \mathbb{N}$ 임을 보이면 $A = \emptyset$ 이 되어서 모순을 얻는다.

이를 위하여 먼저 $0 \in X$, 즉 임의의 $m \in \mathbb{N}$ 에 대하여 $0 \leq m$ 임을 보이는데, 이 또한 귀납법을 사용한다. 먼저 $0 \leq 0$ 은 자명하다. 만일

$0 \leq m$ 이면, $m \in m^+$ 에서 $m \leq m^+$ 이므로 $0 \leq m^+$ 를 얻는다. 다음으로 $n \in X \implies n^+ \in X$ 을 보이기 위하여 $n \in X$ 를 가정하자. 즉,

$$m \in A \implies n \leq m$$

을 가정하자. 만일 $n \in A$ 이면 n 은 A 의 최소 원소이고, 이는 가정에 어긋난다. 따라서 $n \notin A$ 이고, 다음

$$m \in A \implies n < m$$

이 성립한다. 이제 다음

$$n < m \implies n^+ \leq m \quad (6)$$

을 보이면 모든 증명이 끝난다. 이 역시 n 을 고정하고 m 에 대한 귀납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Y = \{m \in \mathbb{N} : n < m \implies n^+ \leq m\}$$

이라 두자. 먼저 $n < 0$ 이면 $n \in \emptyset$ 인데 이러한 원소 n 이 없으므로 $0 \in Y$ 임은 자명하다. 이제, $m \in Y$ 라 가정하자. 만일 $n < m^+$ 이면 $n \in m^+ = m \cup \{m\}$ 이고, 따라서 $n \in m$ 이거나 $n = m$ 이다. 먼저 $n \in m$ 이면 $n < m$ 이므로 귀납법 가정에 의하여 $n^+ \leq m < m^+$ 이고, $n = m$ 이면 $n^+ = m^+$ 이므로, 어느 경우나 $n^+ \leq m^+$ 이다. 따라서, $n < m^+ \implies n^+ \leq m^+$ 가 성립하고 $m^+ \in Y$ 임을 알 수 있다. \square

문제 2.1.3. $m \leq n \iff m^+ \leq n^+$ 임을 보여라.

두 자연수 $m, n \in \mathbb{N}$ 에 대하여 $\{m, n\} \subset \mathbb{N}$ 는 최소 원소를 가지는데, 최소 원소가 m 이면 $m \leq n$ 이고, 최소 원소가 n 이면 $n \leq m$ 이다.

따름정리 2.1.5. 임의의 두 자연수 $m, n \in \mathbb{N}$ 에 대하여 $m \leq n$ 혹은 $n \leq m$ 이 성립한다.

다음 성질

$$n \in \mathbb{N} \implies n = 0 \text{ 혹은 } n = m^+ \text{ 인 } m \in \mathbb{N} \text{ 이 존재한다} \quad (7)$$

은 따름정리 2.1.6 과 정리 2.1.7 의 증명과정에서 유용하게 쓰인다.

문제 2.1.4. 귀납법을 이용하여 명제 (7) 을 증명하여라.

따름정리 2.1.6. 위로 유계이며 비어 있지 않은 자연수들의 집합 $A \subset \mathbb{N}$ 는 최대 원소를 가진다.

증명: 집합 A 의 상계 전체의 집합을 B 라 두면, 가정에 의하여 $B \neq \emptyset$ 이고 정리 2.1.4 에 의하여 최소 원소 $k \in \mathbb{N}$ 를 가진다. 임의의 $n \in A$ 에 대하여 $n \leq k$ 이므로 $k \in A$ 임을 보이면 k 가 A 의 최대 원소임이 증명된다. 이제, $k \notin A$ 이라 가정하자. 그러면, $n \in A$ 을 하나 잡았을 때 $k > n \geq 0$ 이고, 따라서 (7) 에 의하여 $k = s^+$ 이다. 만일 $s \notin B$ 이면 $s < t$ 인 $t \in A$ 가 존재하고, $s^+ \leq t \leq k = s^+$ 이므로 $k = t \in A$ 가 되어서 모순이다. 따라서 $s \in B$ 인데, $s < k$ 이므로 이는 k 가 B 의 최소 원소라는 데에 모순이다. 그러므로, $k \in A$ 임을 알 수 있다. \square

다음 정리는 정수를 정의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뺄 수 있음을 말해 준다.

정리 2.1.7. 만일 $n = m + k$ 이면 $n \geq m$ 이다. 역으로, 두 자연수 $m, n \in \mathbb{N}$ 에 대하여 $n \geq m$ 이면, $n = m + k$ 을 만족하는 자연수 $k \in \mathbb{N}$ 이 유일하게 존재한다.

정리의 유일성을 명확하게 쓰면 다음

$$m + k = m + \ell \implies k = \ell \quad (8)$$

과 같이 된다.

증명: 첫째 명제는 $m + k \geq m$ 을 보이면 되는데, k 에 관한 귀납법을 사용한다. 먼저, $k = 0$ 이면 당연하고, $m + k \geq m$ 이라 가정하면, $m + k^+ = (m + k)^+ > m + k \geq m$ 이 된다.

둘째 명제의 존재성을 보이기 위하여

$$X = \{\ell \in \mathbb{N} : m + \ell \geq n\}$$

라 두면, $n \in X$ 이므로 $X \neq \emptyset$ 이다. 따라서, 정리 2.1.4 에 의하여 X 는 최소 원소 $k \in X$ 를 가지는데, $n = m + k$ 임을 증명하면 된다. 이를 위하여 $m + k > n$ 라 가정하자. 만일 $k = 0$ 이면 $m > n$ 이 가정에 어긋나므로 $k \neq 0$ 이고, (7) 에 의하여 $k = s^+$ (단, $s \in \mathbb{N}$) 으로 쓸 수 있다. 그러면 $(m + s)^+ = m + s^+ = m + k > n$ 에서 $m + s \geq n$ 이고, 따라서 $s \in X$ 인데 $s < s^+ = k$ 이므로 k 가 X 의 최소 원소라는 데에 모순이다.

이제 (8) 을 보이면 증명이 끝나는데, k 에 관한 귀납법을 사용한다. 먼저

$$m + 0 = m + \ell \implies 0 = \ell$$

을 보이자. 만일 $m = m + \ell$ 인데 $\ell \neq 0$ 이면 $\ell = s^+$ 이고,

$$m = m + \ell = m + s^+ = (m + s)^+ \geq m^+ > m$$

이 되어서 모순이다. 이제 (8) 이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m + k^+ = m + \ell$ 이라 하자. 만일 $\ell = 0$ 이면 방금 증명한 바에 의하여 $k^+ = 0$ 이므로, $\ell \neq 0$ 이고 $\ell = t^+$ 이다. 그러면

$$(m + k)^+ = m + k^+ = m + \ell = m + t^+ = (m + t)^+$$

에서 $m + k = m + t$ 를 얻고, 귀납법 가정에 의하여 $k = t$ 및 $k^+ = t^+ = \ell$ 을 얻는다. \square

문제 2.1.5. $m + k \leq m + \ell \iff k \leq \ell$ 를 증명하여라.

2.2. 정수

자연수 $m, n \in \mathbb{N}$ 이 $n \leq m$ 이면 정리 2.1.7 에 의하여 $m = n + k$ 인 자연수 $k \in \mathbb{N}$ 이 유일하게 존재하는데, 이러한 k 를 $m - n$ 으로 쓰자. 이제, $m < n$ 인 경우에도 $m - n$ 이 뜻을 가지게끔 수의 범위를 넓히려 고 한다. 이러한 표현 $m - n$ 은 두 자연수 m, n 의 순서에 의존하므로, $m - n$ 대신에 순서쌍 (m, n) 을 생각하되 $m \geq n$ 이란 제한을 없애고 집합

$$\mathbb{N} \times \mathbb{N} = \{(m, n) : m, n \in \mathbb{N}\}$$

에서 시작하기로 하자. 집합 $\mathbb{N} \times \mathbb{N}$ 에 다음

$$(m, n) \sim (m', n') \iff m + n' = n + m'$$

과 같이 관계를 정의하면, \sim 은 1.3 절의 보기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mathbb{N} \times \mathbb{N}$ 의 동치관계이고

$$m \geq k, n \geq k \implies (m, n) \sim (m - k, n - k) \quad (9)$$

가 성립함을 금방 알 수 있다.

문제 2.2.1. 명제 (9) 가 성립함을 보여라.

이제 $(m, n) \in \mathbb{N} \times \mathbb{N}$ 을 원소로 가지는 $\mathbb{N} \times \mathbb{N}$ 의 동치류 $[(m, n)]$ 을 간단히 $[m, n]$ 으로 표시한다. 집합 $\mathbb{N} \times \mathbb{N} / \sim$ 을 \mathbb{Z} 라 쓰고 \mathbb{Z} 의 원소를 정수라 부른다. 위의 관계 (9) 를 적용하면, 집합 \mathbb{Z} 의 모든 원소를 적당한 자연수 $n = 1, 2, \dots$ 에 대하여 다음

$$[n, 0], \quad [0, 0], \quad [0, n] \quad (10)$$

중의 하나로 표현할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제 집합 \mathbb{Z} 에 다음

$$[m, n] \geq [k, \ell] \iff m + \ell \geq n + k \quad (11)$$

과 같이 관계를 정의하자. 만일 $(m, n) \sim (m', n')$ 이고 $(k, \ell) \sim (k', \ell')$ 이면 정리 2.1.7 에 의하여

$$m + \ell \geq n + k \iff m' + \ell' \geq n' + k'$$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의 (11) 이 잘 정의되어 있고 이는 순서관계가 된다.

문제 2.2.2. 임의의 정수는 (10) 에 열거된 것 중에 하나임을 보여라. 또한, 정의 (11) 이 잘 정의된 순서관계임을 보여라.

정리 2.2.1. 정수집합 \mathbb{Z} 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

- (가) 임의의 원소 $a, b \in \mathbb{Z}$ 에 대하여 $a \geq b$ 이거나 $b \geq a$ 이다.
- (나) 비어 있지 않은 \mathbb{Z} 의 부분집합 S 가 위로 유계이면 S 는 최대원소를 가진다. 마찬가지로, 비어 있지 않은 \mathbb{Z} 의 부분집합 S 가 아래로 유계이면 S 는 최소원소를 가진다.

증명: 만일 $m \geq n$ 이면

$$[m, 0] \geq [n, 0] \geq [0, 0] \geq [0, n] \geq [0, m]$$

이 성립하므로 (가) 가 증명된다.

이제, (나) 를 증명하기 위하여 집합 A 가 위로 유계라 가정하고, 모든 정수를 (10) 에 있는 형태로 표시하여

$$B = \{k \in \mathbb{N} : [k, 0] \in A\}$$

라 두자. 만일 $B \neq \emptyset$ 이면 B 가 위로 유계이므로 따름정리 2.1.6 에 의하여 최대 원소 n 을 가지는데, $[n, 0]$ 이 A 의 최대 원소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만일 $B = \emptyset$ 이면 A 의 모든 원소들은 $[0, k]$ 의 꼴로 표시된다. 이 때, $C = \{k \in \mathbb{N} : [0, k] \in A\}$ 의 최소 원소를 m 이라 두면 $[0, m]$ 이 A 의 최대 원소임을 알 수 있다. 집합 A 가 아래로 유계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square

문제 2.2.3. 정리 2.2.1의 증명을 마무리하여라.

이제, 정수 사이의 더하기를 다음

$$[m, n] + [k, \ell] = [m + k, n + \ell] \quad (12)$$

과 같이 정의하자. 그러면 이 연산이 잘 정의되어 있고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만족한다. 특히 \mathbb{Z} 의 원소 $[0, 0]$ 은 항등원의 역할을 한다. 또한, 정수 $[n, m]$ 이 $[m, n]$ 의 역원이 됨을 알 수 있다.

문제 2.2.4. 집합 \mathbb{Z} 에 정의된 연산 (12)가 잘 정의되어 있고, 2.3 절에 나오는 (체1), (체2), (체3), (체4)가 성립함을 보여라.

이제 정수의 곱하기를 정의하자. 집합 $\mathbb{N} \times \mathbb{N}$ 의 원소 $[m, n]$ 과 $[k, \ell]$ 에 대하여

$$[m, n] \cdot [k, \ell] = [mk + n\ell, m\ell + nk] \quad (13)$$

이라 정의하면, 더하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정의되어 있고 결합법칙과 교환법칙이 만족됨을 알 수 있다. 특히, $[1, 0]$ 은 곱하기의 항등원이다.

문제 2.2.5. 연산 (13)이 잘 정의되어 있음을 보여라. 또한, 집합 \mathbb{Z} 에 정의된 연산 (12)와 (13)에 대하여 2.3 절에 나오는 (체5), (체6), (체8), (체9)가 성립함을 보여라.

문제 2.2.6. 만일 $[m, n] \cdot [k, \ell] = [0, 0]$ 이면 $[m, n] = [0, 0]$ 이거나 $[k, \ell] = [0, 0]$ 이 성립함을 보여라.

문제 2.2.7. 정수 집합 \mathbb{Z} 에 곱하기에 관한 역원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라.

문제 2.2.8. 만일 $P = \{[n, 0] \in \mathbb{Z} : n \in \mathbb{N}, n \neq 0\}$ 이라 두면 2.3 절에 나오는 (순1)이 성립함을 보여라.

함수 $f : \mathbb{N} \rightarrow \mathbb{Z}$ 를

$$f : n \mapsto [n, 0] \quad (14)$$

로 정의하면 $f : \mathbb{N} \rightarrow \mathbb{Z}$ 가 단사함수이고 각 자연수 $m, n \in \mathbb{N}$ 에 대하여 다음

$$f(m+n) = f(n) + f(m)$$

$$f(mn) = f(m)f(n)$$

$$m \geq n \iff f(m) \geq f(n)$$

이 성립하므로, 더하기, 곱하기 및 순서에 관한 한 \mathbb{N} 은 \mathbb{Z} 의 부분집합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제부터, (10) 에 의하여 표시되는 정수를 각각 $n, 0, -n$ 으로 쓰기로 한다.

2.3. 유리수

이제, 정수 전체의 집합 \mathbb{Z} 을 가감승제가 자유롭게 되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가감승제의 의미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편리하다. 집합 F 에 두 이항연산

$$(x, y) \mapsto x + y, \quad (x, y) \mapsto x \cdot y$$

이 주어져서 다음에 열거한 성질 (체1)~(체9) 를 만족하면 이를 체라고 한다. 앞으로 $x \cdot y$ 는 그냥 xy 로 쓰기도 한다.

(체1) 임의의 $a, b, c \in F$ 에 대하여 $a + (b + c) = (a + b) + c$ 이다.

(체2) 다음 성질

$$\text{임의의 } a \in F \text{ 에 대하여 } a + e = e + a = a$$

을 만족하는 원소 $e \in F$ 가 존재한다.

위 성질을 만족하는 원소 $e' \in F$ 가 또 하나 있다면 $e = e + e' = e'$ 이다. 따라서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원소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를 앞으로 0 이라 쓰고 더하기의 항등원이라 한다.

(체3) 각 $a \in F$ 에 대하여 다음 성질

$$a + x = x + a = 0$$

을 만족하는 원소 $x \in F$ 가 있다.

만일 위 성질을 가지는 원소 $y \in F$ 가 또 하나 있다면

$$x = x + 0 = x + (a + y) = (x + a) + y = 0 + y = y$$

가 되어서 이 성질을 가지는 원은 유일하다. 원소 $a \in F$ 에 의하여 결정되는 이 원소를 $-a$ 라 쓰고, 이를 더하기에 관한 a 의 역원이라 한다. 또한 $b + (-a)$ 는 간단히 $b - a$ 로 쓴다.

(체4) 임의의 $a, b \in F$ 에 대하여 $a + b = b + a$ 이다.

(체5) 임의의 $a, b, c \in F$ 에 대하여 $a(bc) = (ab)c$ 이다.

(체6) 다음 성질

$$\text{임의의 } a \in F \text{ 에 대하여 } a \cdot 1 = 1 \cdot a = a$$

을 만족하는 0 아닌 원소 $1 \in F$ 이 존재한다.

(체7) 각 $a \in F \setminus \{0\}$ 에 대하여 다음 성질 $ax = xa = 1$ 을 만족하는 원소 $x \in F$ 가 존재한다.

물론 (체6) 의 원소 1 도 유일하며, 이 특정 원소를 1 로 쓰고 곱하기의 항등원이라 한다. (체7) 의 원소 x 도 (체3)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a 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를 a^{-1} 혹은 $\frac{1}{a}$ 이라 쓰고 곱하기에 관한 a 의 역원이라 한다.

(체8) 임의의 $a, b \in F$ 에 대하여 $ab = ba$ 이다.

(체9) 임의의 $a, b, c \in F$ 에 대하여 $a(b + c) = ab + ac$ 이다.

위 열거한 성질 가운데 (체1) 부터 (체4) 까지는 더하기에 관한 성질들이고, (체5) 부터 (체8) 까지는 곱하기에 관한 성질들임을 알 수 있

다. 공리 (체9)는 물론 더하기와 곱하기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하는 점을 나타낸다. 어떤 집합이 체라 함은 간단히 말하여 더하기와 곱하기가 정의되고 가감승제가 자유롭다는 뜻이다.

보기 1. 정수 전체의 집합 \mathbb{Z} 에 다음

$$a \sim_n b \iff a - b \text{ 는 } n \text{ 의 배수이다}$$

과 같이 정의하면 이는 동치관계가 된다. 여기서, $n = 2, 3, 4, \dots$ 이다. 몫집합 \mathbb{Z}/\sim_n 을 $\mathbb{Z}_n = \{[0], [1], \dots, [n-1]\}$ 이라 쓰고, 다음

$$[i] + [j] = [i + j], \quad [i][j] = [ij]$$

과 같이 연산을 정의한다. 예들 들어, \mathbb{Z}_5 에서는

$$[1] + [3] = [4], \quad [3] + [4] = [7] = [2], \quad [2][4] = [8] = [3]$$

과 같이 된다. 이 연산은 (체7)을 제외한 모든 체의 성질들을 만족한다. 이 연산이 언제 (체7)을 만족하는지 각자 따져 보기 바란다. \square

문제 2.3.1. 보기 1에 나오는 관계가 동치관계임을 보이고, 두 가지 연산이 잘 정의되어 있으며, (체7)을 제외한 모든 체의 성질들을 만족함을 보여라. 이 연산이 (체7)을 만족할 n 의 필요충분조건을 찾아라.

이제 체 위에 순서를 생각하려 하는데,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양수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체 F 의 부분집합 S 에 대하여 집합 $-S$ 를

$$-S = \{-a : a \in S\}$$

로 정의하자.

체 F 에 비어 있지 않은 부분집합 P 가 존재하여 다음

$$(순1) \ a, b \in P \implies a + b, ab \in P,$$

$$(순2) \ F = P \cup \{0\} \cup (-P),$$

$$(순3) \ \text{집합 } P, \{0\} \text{ 및 } -P \text{ 는 서로소이다}$$

과 같은 성질을 가지면 이를 순서체라 하고 P 의 원소를 양수라 한다. 순서체 F 의 두 원소 $a, b \in F$ 에 대하여, $a - b \in P$ 이면 a 가 b 보다 크다고 말하고 이를 $a > b$ 또는 $b < a$ 로 쓴다. 각 정수 $a, b, c \in \mathbb{Z}$ 에 대하여 (체1)–(체6)과 (체8)–(체9)가 성립하고, 0을 제외한 자연수 전체의 집합을 $P_{\mathbb{Z}} \subseteq \mathbb{Z}$ 라 두면 (순1)–(순3)이 성립한다.

문제 2.3.2. 유한집합⁽²⁾은 순서체가 될 수 없음을 보여라.

문제 2.3.3. 순서체에 정의된 양수 집합 P 로부터 다음

$$a \leq b \iff b - a \in P \text{ 혹은 } a = b \quad (15)$$

과 같이 정의하면, 이는 순서관계가 됨을 보여라.

문제 2.3.4. 순서체 F 의 임의의 원소 $a, b, c \in F$ 에 대하여 다음을 보여라.

- (가) $a \geq b, a \leq b \implies a = b$.
- (나) $a \leq b, b \leq c \implies a \leq c$.
- (다) $a + b < a + c \iff b < c$.
- (라) $a > 0, b < c \implies ab < ac$.
- (마) $a < 0, b < c \implies ab > ac$.
- (바) $a^2 \geq 0$, 특히 $1 > 0$.
- (사) $0 < a < b \implies 0 < \frac{1}{b} < \frac{1}{a}$.
- (아) $a, b > 0$ 이면 $a^2 < b^2 \iff a < b$.

순서체 F 의 원소 $a \in F$ 의 절대값 $|a|$ 를 다음

$$|a| = \begin{cases} a, & a \geq 0, \\ -a, & a < 0. \end{cases}$$

과 같이 정의한다. 이는 코시수열을 이용하여 실수를 구성할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리 2.3.1. 순서체 F 의 임의의 원소 $a, b, c \in F$ 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

(2) 집합 X 와 적절한 자연수 $n = \{0, 1, 2, \dots, n-1\}$ 사이에 전단사함수가 있으면 X 를 유한집합이라 한다.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에 대해서는 3.4 절에서 자세히 다룬다.

(가) $|a| \geq 0$ 이다. 또한, $|a| = 0 \iff a = 0$.

(나) $|ab| = |a||b|$.

(다) $b \geq 0$ 이면 $|a| \leq b \iff -b \leq a \leq b$.

(라) $||a| - |b|| \leq |a \pm b| \leq |a| + |b|$.

(마) $|a - c| \leq |a - b| + |b - c|$.

증명: (가), (나) 및 (다) 는 가능한 모든 경우를 따로따로 따져 봄으로써 쉽게 밝힐 수 있다. 이제, (다) 의 특수한 경우로서 $-|a| \leq a \leq |a|$ 임을 알 수 있고 b 나 $-b$ 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므로

$$-(|a| + |b|) \leq a \pm b \leq |a| + |b|$$

를 얻고, (다) 를 다시 적용하면

$$|a \pm b| \leq |a| + |b| \quad (16)$$

임을 알 수 있다. 부등식 $||a| - |b|| \leq |a \pm b|$ 는 방금 증명한 (16) 으로부터 쉽게 유도되고, (마) 는 (라) 에서 바로 나온다. \square

문제 2.3.5. 정리 2.3.1 의 (가), (나), (다) 및 (라) 의 첫째 부등식을 증명하여라.

이제, (체7) 까지 성립하도록 ‘수’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데, 이는 빼기를 하기 위하여 자연수를 정수로 확장하는 과정과 비슷하다. 집합 $\mathbb{Z} \times (\mathbb{Z} \setminus \{0\})$ 에 다음

$$(a, b) \sim (c, d) \iff ad = cb \quad (17)$$

과 같이 관계를 정의하면, 이는 $\mathbb{Z} \times (\mathbb{Z} \setminus \{0\})$ 의 동치관계가 된다. 집합 $\mathbb{Z} \times (\mathbb{Z} \setminus \{0\})/\sim$ 을 \mathbb{Q} 라 쓰고, \mathbb{Q} 의 각 원소를 유리수라 부른다. 여기서도, 각 유리수를 나타내는 동치류 $[(a, b)]$ 를 그냥 $[a, b]$ 로 쓴다. 이제, 더하기와 곱하기를

$$[a, b] + [c, d] = [ad + cb, bd], \quad [a, b] \cdot [c, d] = [ac, bd] \quad (18)$$

라 정의한다. 만일 각 $a \in \mathbb{Z}$ 에 대하여 $a^* = [a, 1]$ 이라 쓰면 0^* 과 1^* 은 각각 더하기와 곱하기에 대한 항등원이 된다.

문제 2.3.6. 관계 (17) 이 동치관계임을 보여라. 정의 (18) 이 잘 정의되어 있음을 보여라. 유리수 전체의 집합 \mathbb{Q} 가 체임을 보여라.

집합 $P_{\mathbb{Z}}$ 가 (순2), (순3) 을 만족하므로, 집합 $\mathbb{Z} \times (\mathbb{Z} \setminus \{0\})$ 의 모든 원소는

$$\{0\} \times (\mathbb{Z} \setminus \{0\}), P_{\mathbb{Z}} \times P_{\mathbb{Z}}, P_{\mathbb{Z}} \times (-P_{\mathbb{Z}}), (-P_{\mathbb{Z}}) \times P_{\mathbb{Z}}, (-P_{\mathbb{Z}}) \times (-P_{\mathbb{Z}})$$

로 분할된다. 그런데, 임의의 $(a, b) \in \mathbb{Z} \times (\mathbb{Z} \setminus \{0\})$ 에 대하여 $(a, b) \sim (-a, -b)$ 이므로, 임의의 유리수는 다음 세 집합

$$\{0\} \times P_{\mathbb{Z}}, P_{\mathbb{Z}} \times P_{\mathbb{Z}}, (-P_{\mathbb{Z}}) \times P_{\mathbb{Z}}$$

에 속하는 원소들을 대표원으로 하는 동치류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제

$$P_{\mathbb{Q}} = \{[a, b] : (a, b) \in P_{\mathbb{Z}} \times P_{\mathbb{Z}}\}$$

라 정의하면, (순2), (순3) 을 만족한다. 또한, $P_{\mathbb{Z}}$ 가 (순1) 을 만족하므로, 정의 (18) 에 의하여 당연히 $P_{\mathbb{Q}}$ 도 (순1) 을 만족한다. 따라서, \mathbb{Q} 는 순서체임을 알 수 있고, (15) 에 의하여 순서관계가 주어진다.

문제 2.3.7. 임의의 $[a, b], [c, d] \in \mathbb{Q}$ 에 대하여

$$[a, b] \geq [c, d] \iff abd^2 \geq cdb^2$$

이 성립함을 보여라.

함수 $a \mapsto a^* = [a, 1] : \mathbb{Z} \rightarrow \mathbb{Q}$ 가 단사함수임은 자명하다. 또한, 다음 성질들

$$(a + b)^* = a^* + b^*$$

$$(ab)^* = a^* b^*$$

$$a \geq b \iff a^* \geq b^*$$

이 성립하므로, 더하기, 곱하기 및 순서에 관한 한 \mathbb{Z} 은 \mathbb{Q} 의 부분집합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제부터, 유리수 $[a, b]$ 를 그냥 $\frac{a}{b}$ 라 쓴다.

임의의 순서체 F 는 더하기와 곱하기에 관한 항등원 0 과 1 을 가진다. 정리 2.1.2 를 적용하면 다음 성질

$$\gamma(0) = 0$$

$$\gamma(n+1) = \gamma(n^+) = \gamma(n) + 1, \quad n \in \mathbb{N}$$

을 만족하는 함수 $\gamma : \mathbb{N} \rightarrow F$ 가 유일하게 존재한다. 여기서 좌변의 더하기는 \mathbb{N} 에서 정의된 더하기이고, 우변의 더하기는 순서체 F 의 더하기이다. 특히, 우변의 0 과 1 은 순서체 F 의 더하기와 곱하기에 관한 항등원이다. 이제,

$$\gamma(n+m) = \gamma(n) + \gamma(m), \quad \gamma(nm) = \gamma(n)\gamma(m), \quad m, n \in \mathbb{N} \quad (19)$$

이 성립함을 보이자. 먼저 $m = 0$ 이면 당연하다. 만일 $m \in \mathbb{N}$ 에 대하여 성립한다면

$$\begin{aligned} \gamma(n+m^+) &= \gamma((n+m)^+) = \gamma(n+m) + 1 \\ &= \gamma(n) + \gamma(m) + 1 = \gamma(n) + \gamma(m^+) \end{aligned}$$

이므로, 임의의 $m, n \in \mathbb{N}$ 에 대하여 (19) 의 첫째 식이 성립한다. 둘째 식 역시 $m = 0$ 이면 당연하고, 귀납법 가정에 의하여

$$\begin{aligned} \gamma(nm^+) &= \gamma(nm+n) = \gamma(nm) + \gamma(n) \\ &= \gamma(n)\gamma(m) + \gamma(n) = \gamma(n)[\gamma(m) + 1] = \gamma(n)\gamma(m^+) \end{aligned}$$

가 되어 증명된다. 또한, 임의의 순서체에서 $0 < 1$ 이므로 $1 \in P_F$ 이다. 만일 $\gamma(n) \in P_F$ 이면 $\gamma(n^+) = \gamma(n) + 1 \in P_F$ 가 되어 다음

$$\gamma(n) \in P_F, \quad n = 1, 2, \dots \quad (20)$$

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끝으로 $\gamma : \mathbb{N} \rightarrow F$ 가 단사함수임을 보이자. 이를 위하여 $n > m$, $\gamma(n) = \gamma(m)$ 이라 가정하자. 그러면 $n = m + k$ 인 $k \in \mathbb{N} \setminus \{0\}$ 를 잡을 수 있고,

$$\gamma(k) = [\gamma(m) + \gamma(k)] - \gamma(m) = \gamma(m+k) - \gamma(m) = \gamma(n) - \gamma(m) = 0$$

인데, 이는 (20) 에 모순이다. 따라서, $\gamma : \mathbb{N} \rightarrow F$ 는 (19) 와 (20) 을 만족하는 단사함수이다.

이제, $\mathbb{N} \subset \mathbb{Z} \subset \mathbb{Q}$ 임을 염두에 두고, 함수 $\gamma : \mathbb{N} \rightarrow F$ 의 정의역을 \mathbb{Q} 에 확장하자. 먼저, 함수 $\gamma : \mathbb{Z} \rightarrow F$ 를

$$\gamma(n) = \gamma(n), \quad \gamma(-n) = -\gamma(n), \quad n \in \mathbb{N}$$

이라 정의한다. 두 함수 $\gamma : \mathbb{N} \rightarrow F$ 와 $\gamma : \mathbb{Z} \rightarrow F$ 는 그 함수값이 \mathbb{N} 위에서 일치하므로, 같은 기호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마찬가지로 $\gamma : \mathbb{Q} \rightarrow F$ 를 다음

$$\gamma\left(\frac{a}{b}\right) = \frac{\gamma(a)}{\gamma(b)}, \quad (a, b) \in \mathbb{Z} \times (\mathbb{Z} \setminus \{0\})$$

과 같이 정의한다. 이렇게 정의된 함수 $\gamma : \mathbb{Q} \rightarrow F$ 가 잘 정의되어 있고, (19) 와 (20) 을 만족하는 단사함수가 됨은 각자 살펴 보기 바란다.

정리 2.3.2. 임의의 순서체 F 에 대하여 다음 성질

(가) 임의의 $r, s \in \mathbb{Q}$ 에 대하여

$$\gamma(r + s) = \gamma(r) + \gamma(s), \quad \gamma(rs) = \gamma(r)\gamma(s)$$

가 성립한다.

(나) $\gamma(P_{\mathbb{Q}}) = \gamma(\mathbb{Q}) \cap P_F$ 이다

을 만족하는 단사함수 $\gamma : \mathbb{Q} \rightarrow F$ 가 유일하게 존재한다.

문제 2.3.8. 정리 2.3.2 의 증명을 마무리하여라. 또한 F 의 곱하기에 관한 항등원을 1_F 이라 두면, 임의의 $r \in \mathbb{Q}$ 에 대하여 $\gamma(r) = r \cdot 1_F$ 임을 보여라.

정리 2.3.2 는 임의의 순서체 F 가 유리수체 \mathbb{Q} 를 포함할 뿐 아니라 두 순서체의 연산과 순서를 구별할 필요가 없음을 말해 준다. 앞으로 순서체 F 에 대하여 논의하는 경우 그 안에 유리수체가 있는 것으로, 즉, $\mathbb{Q} \subset F$ 인 것으로 간주한다.

정리 2.3.3. 순서체 F 에 대하여 다음은 동치이다.

- (가) $x > 0$ 이면 $x > \frac{1}{n}$ 인 자연수 $n = 1, 2, \dots$ 이 존재한다.
- (나) $y > 0$ 이면 $y < n$ 인 자연수 $n = 1, 2, \dots$ 이 존재한다.
- (다) 집합 $\mathbb{N} (\subset F)$ 은 위로 유계가 아니다.
- (라) 임의의 $x, y > 0$ 에 대하여 $y < nx$ 를 만족하는 자연수 $n \in \mathbb{N}$ 이 존재한다.

순서체 F 가 위 명제의 동치 조건들을 만족하면 아르키메데스⁽³⁾ 성질을 만족한다고 말한다.

문제 2.3.9. 정리 2.3.3 을 증명하여라.

정리 2.3.4. 유리수체는 아르키메데스 성질을 만족한다.

증명: 만일 $m, n \in \mathbb{P}_{\mathbb{Z}}$ 이면 $\frac{n}{m} < 2n$ 이다. \square

2.4. 데데킨트절단과 실수

이제, 유리수로부터 실수를 구성하여 보자. 유리수들의 집합 $\alpha \subset \mathbb{Q}$ 가 다음 성질들

- (절1) $\alpha \neq \emptyset, \alpha \neq \mathbb{Q}$ 이다,
- (절2) 만일 $p \in \alpha, q \in \mathbb{Q}, q < p$ 이면 $q \in \alpha$ 이다,
- (절3) 만일 $p \in \alpha$ 이면 $p < r$ 인 $r \in \alpha$ 가 존재한다

을 만족하면, 이를 데데킨트⁽⁴⁾절단 혹은 그냥 절단이라 한다. 데데킨트절단 전체의 집합을 \mathbb{R} 이라 쓰고, 이 집합의 원소, 즉 데데킨트절단

(3) Archimedes (287~212 B.C.). 아르키메데스 성질을 만족하지 않는 순서체의 예를 알고 싶은 이는 참고문헌 [27], 2.5 절의 연습문제 8~10 번 혹은 [15], 1 장을 참조하라.

(4) Julius Wilhelm Richard Dedekind (1831~1916), 독일 수학자. Göttingen 에서 학위를 받은 후, 취리히 및 독일 중부의 Braunschweig 등에서 활동하였다.

을 실수라 부른다. 임의의 $r \in \mathbb{Q}$ 에 대하여

$$r^* = \{p \in \mathbb{Q} : p < r\}$$

은 절단이다.

문제 2.4.1. 임의의 $r \in \mathbb{Q}$ 에 대하여 r^* 가 절단임을 보여라.

보기 1. 집합

$$\alpha = \{p \in \mathbb{Q} : p \leq 0\} \cup \{p \in \mathbb{Q} : 0 < p, p^2 < 2\}$$

은 절단이다. 우선 $0 \in \alpha$, $2 \notin \alpha$ 임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q < p \in \alpha$ 일 때, $q \leq 0$ 이면 당연히 $q \in \alpha$ 이고, $0 < q < p$ 이고 $p^2 < 2$ 이면 $q^2 < 2$ 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q \in \alpha$ 이다. 이제 (절3) 을 보이기 위하여 $p \in \alpha$ 를 택하자. 만일 $p \leq 0$ 이면 $p < 1 \in \alpha$ 이므로 $0 < p$, $p^2 < 2$ 라 가정하고, 정리 2.3.4 를 적용하여 $\frac{1}{n}(2p+1) < 2 - p^2$ 인 자연수 n 을 잡자. 그러면

$$\left(p + \frac{1}{n}\right)^2 \leq p^2 + \frac{2}{n}p + \frac{1}{n} < 2$$

가 되어서 $p + \frac{1}{n} \in \alpha$ 이고, α 는 절단임을 알 수 있다.

이제, 어떤 $r \in \mathbb{Q}$ 에 대해서도 $\alpha \neq r^*$ 임을 보이자. 이를 위하여 $\alpha = r^*$ 인 유리수 $r \in \mathbb{Q}$ 가 있다고 가정하자. 만일 $r^2 < 2$ 이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left(r + \frac{1}{n}\right)^2 < 2$ 인 자연수 $n \in \mathbb{N}$ 을 잡을 수 있다. 그러면 $r + \frac{1}{n} \in \alpha$ 이지만 $r + \frac{1}{n} \notin r^*$ 이어서 모순이다. 이번에는 $r^2 > 2$ 라 가정하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left(r - \frac{1}{m}\right)^2 > 2$ 인 자연수 $m \in \mathbb{N}$ 을 잡을 수 있다. 그러면 $r - \frac{1}{m} \notin \alpha$ 이지만 $r - \frac{1}{m} \in r^*$ 가 되어서 다시 모순이다. 따라서 $r^2 = 2$ 인데, 이러한 유리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square

문제 2.4.2. 양의 유리수 $r \in P_{\mathbb{Q}}$ 가 $r^2 > 2$ 이면 $\left(r - \frac{1}{m}\right)^2 > 2$ 인 자연수 $m \in \mathbb{N}$ 이 존재함을 보여라.

절단 α 에 대하여 $\alpha^c = \mathbb{Q} \setminus \alpha$ 라 두면, 다음

$$p \in \alpha, q \in \alpha^c \implies p < q, \quad r \in \alpha^c, r < s \implies s \in \alpha^c$$

이 성립한다. 따라서, 두 집합 α, α^c 는 \mathbb{Q} 를 수직선 위의 점들로 생각하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분할한다. 이 때, 왼쪽 집합은 (절3)에 의하여 최대값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제, 두 절단 α, β 에 대하여

$$\alpha \leq \beta \iff \alpha \subset \beta$$

으로 정의하면 순서관계를 얻는다. 물론, 여기서도 $\alpha \leq \beta$ 이면서 $\alpha \neq \beta$ 이면 $\alpha < \beta$ 라 쓴다. 만일 $\alpha \subset \beta$ 이 아니면, $p \notin \beta$ 인 $p \in \alpha$ 가 존재한다. 만일 $q \in \beta$ 이면 $p \notin \beta$ 로부터 $q < p$ 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q \in \alpha$ 이다. 즉, $\alpha \subset \beta$ 이 아니면 $\beta \subset \alpha$ 가 되므로, 두 절단 α, β 가 주어지면 $\alpha \leq \beta$ 혹은 $\alpha \geq \beta$ 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음 명제가 증명되었다.

정리 2.4.1. 임의의 실수 $\alpha, \beta \in \mathbb{R}$ 에 대하여 다음

$$\alpha > \beta, \quad \alpha = \beta, \quad \alpha < \beta$$

중 한 명제가 성립하고, 또한 두 명제가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다.

앞으로,

$$P_{\mathbb{R}} = \{\alpha \in \mathbb{R} : \alpha > 0^*\}$$

이라 둔다. 정리 2.4.1 은 (순2) 및 (순3) 이 성립함을 말해 준다.

정리 2.4.2. 비어 있지 않은 집합 $A \subset \mathbb{R}$ 가 위로 유계이면 A 는 상한을 가진다.

증명: 비어 있지 않은 집합 $A \subset \mathbb{R}$ 가 위로 유계일 때, $\alpha = \bigcup\{\beta \in A\}$ 가 A 의 상한임을 보이려 한다. 먼저, $\alpha \subset \mathbb{Q}$ 가 절단임을 보이자. 우선, $\beta \in A$ 를 하나 잡으면 $\alpha \supset \beta \neq \emptyset$ 이고, A 의 상계 $\gamma \in \mathbb{R}$ 을 하나 잡으면 $\alpha \subset \gamma \subsetneq \mathbb{Q}$ 이다. 만일 $p \in \alpha$ 이면 $p \in \beta$ 인 $\beta \in A$ 가 존재한다. 만일 $q < p$ 이면 $q \in \beta \subset \alpha$ 이므로 (절2)가 증명된다. 만일 $p < q$ 인 $q \in \beta$ 를 잡으면 $q \in \alpha$ 이므로 (절3)역시 증명되고, 따라서 $\alpha \in \mathbb{R}$ 이다.

이제 α 가 A 의 상계임을 자명하다. 만일 $\delta < \alpha$ 이면 $\delta \subsetneq \alpha$ 이므로 $r \in \alpha \setminus \delta$ 를 잡을 수 있는데, $r \in \alpha$ 로부터 $r \in \beta$ 인 $\beta \in A$ 가 존재한다. 그러면 $r \in \beta$ 이고 $r \notin \delta$ 이므로 $\beta \not\subseteq \delta$ 이고, 정리 2.4.1에 의하여 $\delta < \beta$ 가 성립한다. 그런데 $\beta \in A$ 이므로, 이는 δ 가 A 의 상한이 아님을 뜻한다. 따라서 δ 가 A 의 상한이면 $\delta \geq \alpha$ 이어야 하고, 이는 α 가 A 의 최소 상계임을 말해 준다. \square

이제, 순서집합 \mathbb{R} 에 연산을 정의할 차례이다. 먼저 $\alpha, \beta \in \mathbb{R}$ 에 대하여

$$\alpha + \beta = \{s + t \in \mathbb{Q} : s \in \alpha, t \in \beta\} \quad (21)$$

이라 정의한다. 먼저, $\alpha + \beta \in \mathbb{R}$ 임을 보이는데, $\alpha + \beta \neq \emptyset$ 임은 자명하다. 만일 $u \notin \alpha, v \notin \beta$ 이면 임의의 $s \in \alpha, t \in \beta$ 에 대하여 $u + v > s + t$ 인데, 이는 임의의 $r \in \alpha + \beta$ 에 대하여 $u + v > r$ 란 말이다. 따라서 $u + v \notin \alpha + \beta$ 이고, $\alpha + \beta \subsetneq \mathbb{Q}$ 이다. 이제, (절2)와 (절3)을 보이기 위하여 $p \in \alpha + \beta$ 라 하자. 그러면 $p = s + t$ (단, $s \in \alpha, t \in \beta$)이다. 만일 $q < p$ 이면 $q - t < s$, $s \in \alpha$ 에서 $q - t \in \alpha$ 가 성립하고, $q = (q - t) + t \in \alpha + \beta$ 이므로 (절2)가 증명된다. 만일 $s < r$ 인 $r \in \alpha$ 을 잡으면 $p < r + t$ 이고, $r + t \in \alpha + \beta$ 이므로 (절3)이 증명되었다.

문제 2.4.3. 연산 (21)에 대하여 결합법칙 (체1)과 교환법칙 (체4)가 성립함을 보여라.

이제, $0^* \in \mathbb{R}$ 가 더하기에 관한 항등원이 됨을 보이자. 이를 위하여 임의의 $\alpha \in \mathbb{R}$ 에 대하여 $\alpha + 0^* = \alpha$ 임을 보이면 된다. 먼저 $r \in \alpha$, $s \in 0^*$ 이면 $r + s < r$ 이므로 $r + s \in \alpha$ 이고, 따라서 $\alpha + 0^* \subset \alpha$ 임을 알 수 있다. 만일 $p \in \alpha$ 이면 $p < r$ 인 $r \in \alpha$ 를 택할 수 있다. 그러면 $p - r \in 0^*$ 이므로 $p = r + (p - r) \in \alpha + 0^*$ 이 되어, $\alpha \subset \alpha + 0^*$ 임을 알 수 있다.

만일 $\alpha > 0^*$ 이면 $p \in \alpha \setminus 0^*$ 을 택할 수 있다. 이는 $0 \leq p$, $p \in \alpha$ 를 뜻하므로 $0 \in \alpha$ 임을 알 수 있다. 역으로, $0 \in \alpha$ 이면 $p < 0 \implies p \in \alpha$ 인데, 이는 $0^* < \alpha$ 임을 뜻한다. 따라서, 다음

$$0^* < \alpha \iff 0 \in \alpha$$

을 얻는다. 이로부터, (순1)의 첫째명제는 바로 나온다.

한편, 더하기에 관한 역원이 있음을 보이기 위하여, 각 $\alpha \in \mathbb{R}$ 에 대하여

$$\beta = \{p \in \mathbb{Q} : r > p, -r \notin \alpha \text{ 인 } r \in \mathbb{Q} \text{ 이 존재한다}\}$$

라 두고, $\beta \in \mathbb{R}$ 과 $\alpha + \beta = 0^*$ 임을 보이자. 먼저 $s \in \mathbb{Q} \setminus \alpha$ 를 택하고 $p < -s$ 인 $p \in \mathbb{Q}$ 를 택하면 $p \in \beta$ 이다. 또한, $q \in \alpha$ 를 택하면

$$r > -q \implies -r < q \implies -r \in \alpha$$

이므로 $-q \notin \beta$ 이다. 이제, $p \in \beta$ 라 하고 $r > p$, $-r \notin \alpha$ 인 $r \in \mathbb{Q}$ 를 잡자. 만일 $q < p$ 이면 $r > q$, $-r \notin \alpha$ 이므로 $q \in \beta$ 이다. 만일 $s = \frac{p+r}{2}$ 라 두면 $r > s$, $-r \notin \alpha$ 이므로 $s \in \beta$ 이고, $p < s$ 이므로 β 가 절단임이 증명되었다.

만일 $q \in \alpha$, $p \in \beta$ 이면 $r > p$, $-r \notin \alpha$ 인 $r \in \mathbb{Q}$ 를 잡을 수 있다. 그러면 $q \in \alpha$, $-r \notin \alpha$ 로부터 $q < -r$ 을 얻는다. 따라서, $-(q+p) = (r-p) + (-r-q) > 0$ 이고 $q+p < 0$ 을 얻어서, $\alpha + \beta \subset 0^*$ 임이 증명되었다. 끝으로 $0^* \subset \alpha + \beta$ 임을 보이자. 이를 위하여 $s \in 0^*$ 에 대하여

$t = \frac{-s}{2} > 0$ 이라 하고

$$A = \{n \in \mathbb{Z} : nt \in \alpha\}$$

라 두자. 만일 A 가 위로 유계가 아니라 가정하자. 그러면 정리 2.3.4 를 적용하여 임의의 $q \in \mathbb{Q}$ 에 대하여 $q < mt$ 인 $m \in \mathbb{N}$ 을 잡을 수 있다. 그런데 m 은 A 의 상계가 아니므로 $m < n$ 인 $n \in A$ 가 존재한다. 결국, $q < nt$ 이고, $nt \in \alpha$ 이므로 $q \in \alpha$ 이고, 따라서 $\alpha = \mathbb{Q}$ 가 되어서 모순이다. 그러므로 A 는 위로 유계이며, 정리 2.1.4 에 의하여 최대 원소 $n_0 \in A$ 를 가진다. 즉, $n_0 t \in \alpha$ 이고 $(n_0 + 1)t \notin \alpha$ 이다. 이제 $r = s - n_0 t = -(n_0 + 2)t$ 라 두자. 그러면 $-(n_0 + 1)t > r$ 과 $(n_0 + 1)t \notin \alpha$ 로부터 $r \in \beta$ 임을 알게 된다. 따라서, $s = n_0 t + r \in \alpha + \beta$ 이다. 결국, $\alpha + \beta = 0^*$ 임이 증명되었으므로 β 는 α 의 역원이고, 앞으로는 $-\alpha$ 로 쓰기로 한다.

이제, 실수의 곱하기를 정의하는데, 먼저 양수 $\alpha, \beta \in P_{\mathbb{R}}$ 에 대하여 정의하자. 임의의 $\alpha, \beta \in P_{\mathbb{R}}$ 에 대하여

$$\alpha\beta = \{p \in \mathbb{Q} : p \leq rs \text{ 인 } r \in \alpha \cap P_{\mathbb{Q}}, s \in \beta \cap P_{\mathbb{Q}} \text{ 가 존재한다}\}$$

로 정의한다.

문제 2.4.4. 임의의 $\alpha, \beta \in P_{\mathbb{R}}$ 에 대하여

$$\alpha\beta = 0^* \cup \{rs : 0 \leq r \in \alpha, 0 \leq s \in \beta\}$$

임을 보여라.

먼저 $\alpha\beta$ 가 절단임을 보이자. 우선 $0 \in \alpha$, $0 \in \beta$ 이므로 $0 \in \alpha\beta$ 이다. 또한, $u \notin \alpha$, $v \notin \beta$ 이면 $uv \notin \alpha\beta$ 이다. 실제로 임의의 $s \in \alpha$, $t \in \beta$ 에 대하여 $s < u$, $t < v$ 이므로 $st < uv$ 이고, 따라서 (절1) 이 증명된다. (절2) 와 (절3) 또한 정의에 의하여 자명하다. 따라서 $\alpha\beta \in \mathbb{R}$ 이고, 특히 (순1) 의 둘째 명제가 증명되었다. 이제, 각 $\alpha, \beta \in \mathbb{R}$ 에 대하여 다음

$$\alpha\beta = \begin{cases} 0^*, & \alpha = 0^* \text{ 혹은 } \beta = 0^* \\ -(-\alpha)\beta, & \alpha \in -P_{\mathbb{R}}, \beta \in P_{\mathbb{R}} \\ -\alpha(-\beta), & \alpha \in P_{\mathbb{R}}, \beta \in -P_{\mathbb{R}} \\ (-\alpha)(-\beta), & \alpha \in -P_{\mathbb{R}}, \beta \in -P_{\mathbb{R}} \end{cases}$$

과 같이 정의한다.

문제 2.4.5. 집합 \mathbb{R} 에 정의된 더하기와 곱하기에 대하여 (체5), (체8), (체9) 가 성립함을 보여라. [도움말: 먼저 $P_{\mathbb{R}}$ 의 원소들에 대하여 증명한다.]

문제 2.4.6. 각 실수 $\alpha \in \mathbb{R}$ 에 대하여 $\alpha 1^* = 1^* \alpha = \alpha$ 임을 보여라. 또한, $0^* < 1^*$ 임을 보여라.

이제, 곱하기에 관한 역원의 존재를 보이면 \mathbb{R} 이 순서체임을 증명하는 과정이 모두 끝난다. 각 $\alpha \in P_{\mathbb{R}}$ 에 대하여

$$\gamma = 0^* \cup \{0\} \cup \{q \in P_{\mathbb{Q}} : r > q, \frac{1}{r} \notin \alpha \text{ 인 } r \in P_{\mathbb{Q}} \text{ 이 존재한다}\} \quad (22)$$

라 정의한다.

문제 2.4.7. (22) 에서 정의된 γ 가 절단임을 보이고, $\alpha\gamma = 1^*$ 임을 보여라.

이제, 각 $\alpha \in -P_{\mathbb{R}}$ 에 대하여

$$\alpha \left(-\frac{1}{-\alpha} \right) = -\alpha \left(\frac{1}{-\alpha} \right) = (-\alpha) \left(\frac{1}{-\alpha} \right) = 1$$

이므로, $\alpha \neq 0$ 인 $\alpha \in \mathbb{R}$ 는 곱하기에 관한 역원을 가진다.

결론적으로, 이 절에서 구성한 집합 \mathbb{R} 은 정리 2.4.2 를 만족하는 순서체임을 증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임의의 $r, s \in \mathbb{Q}$ 에 대하여 다음 성질들

$$\begin{aligned} r = s &\iff r^* = s^* \\ (r + s)^* &= r^* + s^* \\ (rs)^* &= r^* s^* \end{aligned} \quad (23)$$

$$r \in P_{\mathbb{Q}} \iff r^* \in P_{\mathbb{R}}$$

이 성립함을 보이는데, 이는

$$r \mapsto r^* : \mathbb{Q} \rightarrow \mathbb{R}$$

이 연산과 순서를 보존하는 단사함수임을 말한다.

2.5. 코시수열과 실수

자연수집합 \mathbb{N} 에서 집합 X 로 가는 함수 $x: \mathbb{N} \rightarrow X$ 를 X 의 수열이라 부른다. 순서체 F 의 수열 $x: \mathbb{N} \rightarrow F$ 와 $a \in F$ 가 주어져 있을 때, 임의의 $e \in P_F$ 에 대하여 다음 성질

$$i \geq N \implies |x(i) - a| < e$$

을 만족하는 자연수 $N \in \mathbb{N}$ 이 존재하면, x 가 $a \in F$ 로 수렴한다고 말한다. 또한, 임의의 $e \in P_F$ 에 대하여 다음 성질

$$i, j \geq N \implies |x(i) - x(j)| < e$$

을 만족하는 자연수 N 이 존재하면, x 를 코시⁽⁵⁾수열이라 부른다. 특히, 유리수의 코시수열을 기본열이라 부른다. 임의의 유리수 $r \in \mathbb{Q}$ 에 대하여

$$r^*(i) = r, \quad i \in \mathbb{N}$$

이라 정의하면 r^* 는 당연히 기본열이다. 끝으로, 순서체 F 의 수열 x 에 대하여 다음 성질

$$|x(i)| \leq M, \quad i \in \mathbb{N}$$

을 만족하는 $M \in F$ 가 있으면, 이는 유계수열이라 한다.

문제 2.5.1. 순서체 F 의 수열 $x: \mathbb{N} \rightarrow F$ 가 유계일 필요충분조건은 집합 $\{x(i) \in X : i \in \mathbb{N}\}$ 이 위로 유계이고 동시에 아래로 유계임을 보여라.

(5) Augustin Louis Cauchy (1789~1857), 프랑스 수학자. 원래, 토목공학을 전공하려 하였으나, École Polytechnique의 라플라스 등이 권하여 수학을 하게 되었다. 1816년부터 École Polytechnique의 교수로 있으면서 수많은 논문과 저작을 남겼으나, 1830년 혁명 이후 정치적인 이유(왕당파)로 쫓겨 나기도 했다가 1848년 복귀하였다. 그에 관한 전기로 [9] 등이 있다.

정리 2.5.1. 순서체 F 의 수열 $x : \mathbb{N} \rightarrow F$ 가 수렴하면 코시수열이다. 또한 임의의 코시수열은 유계이다.

증명: $x : \mathbb{N} \rightarrow F$ 가 $a \in F$ 로 수렴하고,

$$i \geq N \implies |x(i) - a| < \frac{\epsilon}{2}$$

인 자연수 N 을 잡자. 그러면, 임의의 $i, j \geq N$ 에 대하여

$$|x(i) - x(j)| \leq |x(i) - a| + |x(j) - a| < \frac{\epsilon}{2} + \frac{\epsilon}{2} = \epsilon$$

가 되어, x 는 코시수열이다. 이제 x 가 코시수열이라 가정하고,

$$i, j \geq N \implies |x(i) - x(j)| < 1$$

인 자연수 $N \in \mathbb{N}$ 을 잡자. 그러면, 임의의 자연수 $i \geq N$ 에 대하여 $|x(i) - x(N)| < 1$ 이므로, $|x(i)| \leq |x(N)| + 1$ 임을 알 수 있다. 이제,

$$M = \sup\{|x(0)|, |x(1)|, \dots, |x(N-1)|, |x(N)| + 1\}$$

이라 두면, 임의의 $i \in \mathbb{N}$ 에 대하여 $|x(i)| \leq M$ 이다. \square

두 기본열 $\alpha, \beta : \mathbb{N} \rightarrow \mathbb{Q}$ 가 주어져 있다고 하자. 임의의 유리수 $\epsilon > 0$ 에 대하여

$$i \geq N \implies |\alpha(i) - \beta(i)| < \epsilon$$

이 성립하는 자연수 N 을 잡을 수 있을 때, $\alpha \sim \beta$ 라 정의하자. 먼저 $\alpha \sim \alpha$ 및 $\alpha \sim \beta \implies \beta \sim \alpha$ 임은 당연하다. 만일 $\alpha \sim \beta$, $\beta \sim \gamma$ 이면

$$i \geq N_1 \implies |\alpha(i) - \beta(i)| < \frac{\epsilon}{2}, \quad i \geq N_2 \implies |\beta(i) - \gamma(i)| < \frac{\epsilon}{2}$$

인 자연수 N_1, N_2 를 잡을 수 있다. 따라서 $N = \sup\{N_1, N_2\}$ 라 두면, 임의의 $i \geq N$ 에 대하여

$$|\alpha(i) - \gamma(i)| \leq |\alpha(i) - \beta(i)| + |\beta(i) - \gamma(i)| < \frac{\epsilon}{2} + \frac{\epsilon}{2} = \epsilon$$

이므로 $\alpha \sim \gamma$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방금 정의한 관계 \sim 는 기본열 전체의 집합 \mathcal{F} 의 동치관계가 된다. 이제, \mathcal{F}/\sim 을 \mathbb{R} 로 표시하고, 이 몫집합의 원소들을 실수라 부른다.

두 실수 $[\alpha], [\beta] \in \mathbb{R}$ 에 대하여, 다음 성질

$$i \geq N \implies \alpha(i) - \beta(i) > d$$

을 만족하는 유리수 $d > 0$ 와 자연수 N 이 있을 때,

$$[\alpha] > [\beta] \tag{24}$$

이라 정의하자.

문제 2.5.2. 정의 (24) 가 잘 정의되어 있음을 보여라.

정리 2.5.2. 임의의 실수 $[\alpha], [\beta] \in \mathbb{R}$ 에 대하여 다음

$$[\alpha] > [\beta], \quad [\alpha] = [\beta], \quad [\alpha] < [\beta]$$

중 한 명제가 성립하고, 또한 두 명제가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다.

증명: 임의의 유리수 $e > 0$ 에 대하여 다음 성질

$$i \geq N_e \implies |\alpha(i) - \alpha(N_e)| < e, \quad |\beta(i) - \beta(N_e)| < e$$

이 성립하는 최소 자연수 N_e 를 잡자. 이 자연수 N_e 는 물론 유리수 $e > 0$ 에 의하여 주어진다. 그러면 각 $i \geq N_e$ 에 대하여

$$\alpha(N_e) - \beta(N_e) - 2e < \alpha(i) - \beta(i) < \alpha(N_e) - \beta(N_e) + 2e \tag{25}$$

가 성립한다. 이제,

$$d_e = \alpha(N_e) - \beta(N_e) - 2e, \quad d'_e = \alpha(N_e) - \beta(N_e) + 2e$$

라 두자.

우선, 적당한 유리수 $e > 0$ 에 대하여 $d_e > 0$ 인 경우에

$$i \geq N_e \implies \alpha(i) - \beta(i) > d_e$$

이 되므로 $[\alpha] > [\beta]$ 이다. 또한, 적당한 유리수 $e > 0$ 에 대하여 $d'_e < 0$ 이면

$$i \geq N_e \implies \beta(i) - \alpha(i) > -d'_e$$

이므로 $[\beta] > [\alpha]$ 가 된다. 이제, 위의 두 가지 경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임의의 유리수 $e > 0$ 에 대하여 $d_e \leq 0$, $d'_e \geq 0$ 이 된다. 따라서

$$\alpha(N_e) - \beta(N_e) \leq 2e, \quad \beta(N_e) - \alpha(N_e) \leq 2e$$

이므로, (25) 에 의하여

$$i \geq N_e \implies |\alpha(i) - \beta(i)| \leq |\alpha(N_e) - \beta(N_e)| + 2e \leq 4e < 5e$$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lpha \sim \beta$ 이 되어 $[\alpha] = [\beta]$ 이다. \square

문제 2.5.3. 정리 2.5.2 에서 세 가지 경우 중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할 수 없음을 보여라.

이제, 두 실수 $[\alpha], [\beta]$ 에 대하여

$$[\alpha] + [\beta] = [\alpha + \beta] \tag{26}$$

라 정의하자. 여기서 $\alpha + \beta$ 는 $i \mapsto \alpha(i) + \beta(i)$ 로 정의되는 유리수열이다. 우선 $\alpha + \beta$ 가 기본열임을 보이자. 이를 위하여

$$\begin{aligned} i, j \geq N_1 &\implies |\alpha(i) - \alpha(j)| < \frac{e}{2}, \\ i, j \geq N_2 &\implies |\beta(i) - \beta(j)| < \frac{e}{2} \end{aligned}$$

인 자연수 $N_1, N_2 \in \mathbb{N}$ 를 잡고, $N = \sup\{N_1, N_2\}$ 라 두자. 그러면 임의의 $i, j \geq N$ 에 대하여

$$\begin{aligned} |(\alpha + \beta)(i) - (\alpha + \beta)(j)| &= |[\alpha(i) - \alpha(j)] + [(\beta(i) - \beta(j))]| \\ &< \frac{e}{2} + \frac{e}{2} = e \end{aligned}$$

가 되어 $\alpha + \beta$ 는 기본열이다.

문제 2.5.4. 정의 (26) 이 잘 정의되어 있고, 결합법칙과 교환법칙을 만족함을 보여라. 또한, 0^* 이 이 연산에 관한 항등원임을 보여라. 기본열 $\alpha \in \mathbb{R}$ 에 대하여 $(-\alpha)(i) = -\alpha(i)$ 로 정의된 유리수열 $-\alpha$ 가 기본열이고 α 의 더하기에 관한 역원임을 보여라.

이제 실수의 곱하기를 정의하기 위하여, 두 유리수열 $\alpha, \beta : \mathbb{N} \rightarrow \mathbb{Q}$ 에 대하여

$$\alpha\beta : i \mapsto \alpha(i)\beta(i)$$

라 정의하자. 이를 위하여 α, β 가 기본열이면 $\alpha\beta$ 도 기본열임을 보이자. 우선, 정리 2.5.1 에 의하여 다음 성질

$$|\alpha(i)| \leq M_1, |\beta(i)| \leq M_2, \quad i \in \mathbb{N}$$

을 만족하는 $M_1, M_2 \in \mathbb{Q}$ 를 잡고, $M = \sup\{M_1, M_2\}$ 라 하자. 또한,

$$\begin{aligned} i, j \geq N_1 &\implies |\alpha(i) - \alpha(j)| < \frac{e}{2M}, \\ i, j \geq N_2 &\implies |\beta(i) - \beta(j)| < \frac{e}{2M} \end{aligned}$$

을 만족하는 자연수 N_1, N_2 를 잡고, $N = \sup\{N_1, N_2\}$ 라 하자. 그러면, 임의의 $i, j \geq N$ 에 대하여

$$\begin{aligned} |\alpha(i)\beta(i) - \alpha(j)\beta(j)| &\leq |\alpha(i)\beta(i) - \alpha(i)\beta(j)| + |\alpha(i)\beta(j) - \alpha(j)\beta(j)| \\ &= |\alpha(i)||\beta(i) - \beta(j)| + |\beta(j)||\alpha(i) - \alpha(j)| \\ &< M \frac{e}{2M} + M \frac{e}{2M} = e \end{aligned}$$

가 되어, $\alpha\beta$ 가 기본열임이 증명된다. 이제, $\alpha, \beta \in \mathbb{R}$ 에 대하여

$$[\alpha][\beta] = [\alpha\beta] \tag{27}$$

로 정의한다.

문제 2.5.5. 정의 (27) 이 잘 정의되어 있으며, 결합법칙, 교환법칙, 배분법칙을 만족함을 보여라. 또한, 1^* 이 이 연산에 관한 항등원임을 보여라.

이제, \mathbb{R} 이 체임을 보이기 위하여 곱하기에 관한 역원의 존재성을 증명할 차례이다. 만일 $[\alpha] \neq 0^*$ 이면 정리 2.5.2 에 의하여 $[\alpha] > 0^*$ 이거나 $[\alpha] < 0^*$ 이 성립한다. 따라서, 적당한 유리수 $d > 0$ 와 자연수 N_1 에 대하여

$$i \geq N_1 \implies \alpha(i) > d \quad \text{이거나} \quad i \geq N_1 \implies \alpha(i) < -d$$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본열의 유한개 항을 바꾸어도 그 동치류는 변하지 않으므로, 임의의 $i \in \mathbb{N}$ 에 대하여 $\alpha(i) \neq 0$ 이라 가정해도 무방하다. 이제,

$$\beta : i \mapsto \frac{1}{\alpha(i)} : \mathbb{N} \rightarrow \mathbb{Q}$$

와 같이 유리수열을 정의한다. 이제 β 가 기본열임을 보이면 $[\alpha][\beta] = 1^*$ 임은 자명하다. 먼저

$$i \geq N_2 \implies |\alpha(i) - \alpha(j)| < d^2e$$

가 성립하는 자연수 N_2 를 잡고, $N = \sup\{N_1, N_2\}$ 라 하자. 그러면, 임의의 $i \geq N_1$ 에 대하여 $|\alpha(i)| > d$ 이므로, 임의의 $i, j \geq N$ 에 대하여

$$\begin{aligned} |\beta(i) - \beta(j)| &= \left| \frac{1}{\alpha(i)} - \frac{1}{\alpha(j)} \right| \\ &= \frac{1}{|\alpha(i)\alpha(j)|} |\alpha(i) - \alpha(j)| < \frac{1}{d^2} d^2e = e \end{aligned}$$

가 되어 β 가 기본열임을 알 수 있다.

끝으로,

$$P_{\mathbb{R}} = \{[\alpha] \in \mathbb{R} : [\alpha] > 0^*\}$$

이라 두면 순서공리 (순1) - (순3) 이 모두 성립한다. 따라서, 실수체 \mathbb{R} 은 순서체가 된다.

문제 2.5.6. 만일 α 가 기본열이면 $|\alpha| : i \mapsto |\alpha(i)|$ 로 정의된 유리수열 $|\alpha|$ 도 기본열임을 보여라. 또한, 실수 $[\alpha] \in \mathbb{R}$ 의 절대값 $||[\alpha]|$ 은 기본열 $|\alpha|$ 에 의하여 주어짐을 보여라.

정리 2.5.3. 두 실수 $[\alpha], [\beta]$ 가 $[\alpha] > [\beta]$ 이면 $[\alpha] > r^* > [\beta]$ 를 만족하는 유리수 $r \in \mathbb{Q}$ 가 존재한다.

증명: 우선, 다음 관계

$$i \geq N_1 \implies \alpha(i) - \beta(i) > d$$

가 성립하도록 자연수 N_1 과 유리수 $d > 0$ 를 잡자. 또한 다음 성질

$$i, j \geq N_2 \implies |\alpha(i) - \alpha(j)| < \frac{1}{4}d, \quad |\beta(i) - \beta(j)| < \frac{1}{4}d$$

이 성립하는 자연수 N_2 를 잡은 후에, $N = \sup\{N_1, N_2\}$ 라 두자. 만일 $i \geq N$ 이면

$$\alpha(i) - \left(\alpha(N) - \frac{1}{2}d\right) = \frac{1}{2}d + (\alpha(i) - \alpha(N)) > \frac{1}{4}d$$

이므로, $[\alpha] > \left(\alpha(N) - \frac{1}{2}d\right)^*$ 를 얻는다. 또한 $i \geq N$ 에 대하여

$$\begin{aligned} \left(\alpha(N) - \frac{1}{2}d\right) - \beta(i) &= (\alpha(N) - \beta(N)) + (\beta(N) - \beta(i)) - \frac{1}{2}d \\ &> d - \frac{1}{4}d - \frac{1}{2}d = \frac{1}{4}d \end{aligned}$$

이므로, $\left(\alpha(N) - \frac{1}{2}d\right)^* > [\beta]$ 를 얻는다. 따라서, $\alpha(N) - \frac{1}{2}d \in \mathbb{Q}$ 가 원하는 유리수임을 알 수 있다. \square

함수 $i : \mathbb{N} \rightarrow \mathbb{N}$ 이 임의의 $k = 0, 1, 2, \dots$ 에 대하여 $i(k) < i(k+1)$ 이라 하자. 이 함수와 수열 $x : i \mapsto x(i)$ 의 합성 $x \circ i : k \mapsto x(i(k))$ 를 x 의 부분수열이라 한다. 순서체 F 의 수열 x 가 $a \in F$ 로 수렴하면, x 의 모든 부분수열이 a 로 수렴함은 자명하다.

도움정리 2.5.4. 순서체 F 의 코시수열 x 의 한 부분수열 $x \circ i$ 가 점 $a \in F$ 로 수렴하면 x 도 $a \in F$ 로 수렴한다.

증명: 임의의 $\epsilon \in P_F$ 가 주어졌을 때, 먼저 다음 성질

$$i, j \geq N \implies |x(i) - x(j)| < \frac{\epsilon}{2}$$

이 성립하는 자연수 N 을 잡고

$$k \geq K \implies |x(i(k)) - a| < \frac{\epsilon}{2}, \quad i(K) \geq N$$

이 성립되도록 자연수 K 를 잡자. 이제 $i \geq i(K)$ 이면

$$|x(i) - a| \leq |x(i) - x(i(K))| + |x(i(K)) - a| < \frac{\epsilon}{2} + \frac{\epsilon}{2} = \epsilon$$

이 되어서 x 는 a 로 수렴한다. \square

정리 2.5.5. 각 $n = 1, 2, \dots$ 에 대하여 $[\alpha_n]$ 이 실수이고, $n \mapsto [\alpha_n]$ 이 \mathbb{R} 의 코시수열이라 하자. 그러면 이 수열은 \mathbb{R} 안에서 수렴한다.

증명: 우선 다음 조건

$$[\alpha_n] \neq [\alpha_{n+1}], \quad n = 1, 2, \dots \quad (28)$$

이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정리 2.5.3 에 의하여 $[\alpha_n]$ 과 $[\alpha_{n+1}]$ 사이에 유리수 $r(n) \in \mathbb{Q}$ 를 잡을 수 있고, 다음 성질

$$|[\alpha_n] - r(n)^*| < |[\alpha_n] - [\alpha_{n+1}]|, \quad n = 1, 2, \dots$$

이 성립한다. 따라서, 임의의 실수 $[\epsilon] > 0$ 이 주어지면 다음 성질

$$n \geq N \implies |[\alpha_n] - r(n)^*| < \frac{1}{3}[\epsilon] \quad (29)$$

이 성립하는 자연수 N 을 잡을 수 있다. 한편 $0 < [\epsilon]$ 이므로, 적당한 자연수 I_0 과 유리수 $d > 0$ 에 대하여 다음

$$i \geq I_0 \implies \frac{1}{3}\epsilon(i) > d \quad (30)$$

이 성립한다. 그런데 유리수열 $n \mapsto r(n)$ 이 기본열이 된다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다음 성질

$$i, j \geq M \implies |r(i) - r(j)| < d \quad (31)$$

이 성립하도록 자연수 M 을 잡을 수 있다. 이제 (29) 에 의하면, 각 자연수 $n \geq N$ 에 대하여 다음 성질

$$i \geq I(n) \implies |\alpha_n(i) - r(n)| < \frac{1}{3}\epsilon(i) \quad (32)$$

이 성립하는 자연수 $I(n)$ 을 잡을 수 있다. 이제 $n \geq \sup\{N, M\}$ 인 자연수 n 을 잡으면, 각 $i \geq \sup\{I_0, I(n), M\}$ 에 대하여 (30), (31), (32) 를 적용하여

$$\begin{aligned} |\alpha_n(i) - r(i)| &\leq |\alpha_n(i) - r(n)| + |r(n) - r(i)| \\ &< \frac{1}{3}\epsilon(i) + d < \frac{1}{3}\epsilon(i) + \frac{1}{3}\epsilon(i) = \frac{2}{3}\epsilon(i) \end{aligned}$$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n \geq \sup\{N, M\}$ 에 대하여

$$|[\alpha_n] - [r]| \leq \frac{2}{3}[\epsilon] < [\epsilon]$$

이고, 수열 $\langle [\alpha_n] \rangle$ 은 실수 $[r]$ 로 수렴한다.

만일 충분히 큰 자연수에 대하여 $[\alpha_n]$ 이 일정한 값이면 증명할 것이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성질 (28) 이 성립하도록 $\langle [\alpha_n] \rangle$ 의 부분수열을 잡을 수 있는데, 도움정리 2.5.4 에 의하여 이 부분수열의 극한이 바로 수열 $n \mapsto [\alpha_n]$ 의 극한이 된다. \square

문제 2.5.7. 이 절에서 정의한 $r^* \in \mathbb{R}$ 에 대해서도 (23) 에 열거한 성질들이 그대로 성립함을 보여라.

2.6. 완비순서체

앞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실수를 구성하였는데, 이 절에서는 이 두 가지 구성 방법의 결과가 사실상 같음을 보이려 한다. 순서체 F 가 다음 성질

(완1) 비어 있지 않은 집합 $A \subset F$ 가 위로 유계이면 A 는 상한을 가진다

을 가지면 이를 완비순서체라 한다. 정리 2.4.2 는 데데킨트절단으로 정의된 실수체 \mathbb{R} 이 완비순서체임을 말해 준다. 다음 성질

(완2) 비어 있지 않은 집합 $A \subset F$ 가 아래로 유계이면 A 는 하한을 가진다

이 (완1) 과 동치임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문제 2.6.1. 두 명제 (완1) 과 (완2) 가 동치임을 보여라.

정리 2.5.5 는 코시수열에 의하여 만든 실수체가 다음 조건

(완3) 임의의 코시수열 $x : \mathbb{N} \rightarrow F$ 가 F 안에서 수렴한다

을 만족함을 말한다. 이 절에서는 완비순서체가 유일하다는 것과 (완1) 과 (완3) 이 동치임을 보인다. 먼저, 완비순서체의 간단한 성질을 살펴보자.

정리 2.6.1. 완비순서체 F 는 아르키메데스 성질을 만족한다.

증명: 집합 $\mathbb{N} (\subset F)$ 이 위로 유계라 가정하자. 그러면 (완1) 에 의하여 \mathbb{N} 의 최소상계 $\alpha \in F$ 가 존재한다. 그런데 $\alpha - 1 < \alpha$ 이므로 $\alpha - 1$ 은 \mathbb{N} 의 상계가 아니고, 따라서 부등식 $\alpha - 1 < n \leq \alpha$ 을 만족하는 자연수 $n \in \mathbb{N}$ 이 존재한다. 그러면 $n + 1 \in \mathbb{N}$ 임에도 불구하고 $n + 1 > \alpha$ 이기 때문에 α 가 \mathbb{N} 의 상계라는 데 모순이다. \square

정리 2.6.2. 완비순서체 F 의 두 원소 $x, y \in F$ 가 $x < y$ 이면 부등식 $x < r < y$ 를 만족하는 유리수 $r \in \mathbb{Q} (\subset F)$ 이 존재한다.

증명: 우선 $x = 0$ 이면 정리 2.6.1 과 정리 2.3.3 (가) 를 적용하면 된다. 이제 $0 < x < y$ 라 하자. 다시 정리 2.6.1 에 의하여 $0 < \frac{1}{n} < y - x$ 인 $n \in \mathbb{N}$ 이 있다. 두 양수 $\frac{1}{n} \in F$ 과 $x \in F$ 에 대하여 정리 2.6.1 을 다시 적용하면

$$\{k \in \mathbb{N} : k \cdot \frac{1}{n} > x\} \neq \emptyset$$

이다. 정리 2.1.4 에 의하여 이 집합은 최소값을 가지는데, 이 최소값을 m 이라 두면 $\frac{m-1}{n} \leq x < \frac{m}{n}$ 이고, 따라서

$$x < \frac{m}{n} = \frac{m-1}{n} + \frac{1}{n} \leq x + \frac{1}{n} < y$$

이므로 $\frac{m}{n}$ 이 바로 우리가 찾는 유리수이다. 끝으로 $x < 0$ 일 때에는, $-x < n$ 인 자연수 n 을 먼저 찾으면 $0 < x + n < y + n$ 이므로 방금 증명한 바에 의하여 $x + n < r < y + n$ 인 $r \in \mathbb{Q}$ 이 있고, 따라서 $r - n$ 이 우리가 찾는 유리수이다. \square

완비순서체의 유일성을 증명하기 앞서서, (완3) 을 가정하고 (완1) 을 증명함으로써 2.5 절에서 코시수열을 이용하여 구성한 실수체가 완비순서체임을 보이자. 이를 위하여 순서체 F 의 비어 있지 않은 부분 집합 $A \subset F$ 가 위로 유계라 가정하자. 먼저

$$\mathcal{I} = \{(a, b) \in F \times F : a < b\}$$

라 두고, 두 함수 $g, h : \mathcal{I} \rightarrow F$ 를 다음

$$g((a, b)) = \begin{cases} a, & \frac{a+b}{2} \text{ 가 } A \text{ 의 상계이다,} \\ \frac{a+b}{2}, & \frac{a+b}{2} \text{ 가 } A \text{ 의 상계가 아니다} \end{cases}$$

$$h((a, b)) = \begin{cases} \frac{a+b}{2}, & \frac{a+b}{2} \text{ 가 } A \text{ 의 상계이다,} \\ b, & \frac{a+b}{2} \text{ 가 } A \text{ 의 상계가 아니다} \end{cases}$$

과 같이 정의한다. 그러면 다음 성질

$$a \leq g((a, b)) < h((a, b)) \leq b, \quad h((a, b)) - g((a, b)) = \frac{1}{2}(b - a)$$

이 바로 확인된다. 또한, a 가 A 의 상계가 아니고 b 가 A 의 상계이면, $g((a, b))$ 는 A 의 상계가 아니고 $h((a, b))$ 는 A 의 상계이다. 이제, 함수 $f: \mathcal{I} \rightarrow \mathcal{I}$ 를 다음

$$f: (a, b) \mapsto (g((a, b)), h((a, b))) : \mathcal{I} \rightarrow \mathcal{I}$$

과 같이 정의하자. 만일 A 의 원소가 한 개이면 증명할 것이 없으므로, A 가 적어도 두 개의 원소를 가진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A 의 상계가 아닌 $a_0 \in A$ 와 A 의 상계 b_0 를 택하자. 그러면 정리 2.1.2를 적용하여, $\gamma(0) = (a_0, b_0)$ 이고, 임의의 $n \in \mathbb{N}$ 에 대하여 $\gamma(n^+) = f(\gamma(n))$ 을 만족하는 함수 $\gamma: \mathbb{N} \rightarrow \mathcal{I}$ 를 찾을 수 있다. 이제 두 함수 $\pi_1, \pi_2: \mathcal{I} \rightarrow F$ 를 다음

$$\pi_1: (a, b) \mapsto a, \quad \pi_2: (a, b) \mapsto b, \quad (a, b) \in \mathcal{I}$$

와 같이 정의하자. 끝으로 $\alpha = \pi_1 \circ \gamma$, $\beta = \pi_2 \circ \gamma$ 라 두면, α, β 는 모두 F 의 수열이 되며,

$$\alpha(n^+) = (\pi_1 \circ \gamma)(n^+) = (\pi_1 \circ f)(\gamma(n)) = g(\gamma(n)) = g(\alpha(n), \beta(n))$$

$$\beta(n^+) = (\pi_2 \circ \gamma)(n^+) = (\pi_2 \circ f)(\gamma(n)) = h(\gamma(n)) = h(\alpha(n), \beta(n))$$

이 된다. 앞서 살펴본 g, h 의 성질 덕분에, 각 $n \in \mathbb{N}$ 에 대하여 다음

(가) $\alpha(n)$ 은 A 의 상계가 아니고 $\beta(n)$ 은 A 의 상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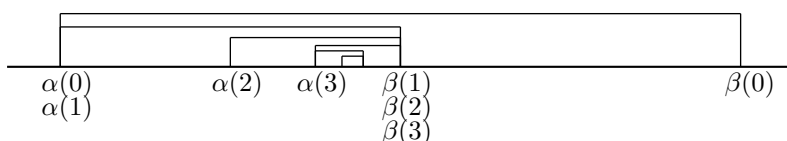
(나) $\alpha(n) \leq \alpha(n^+) < \beta(n^+) \leq \beta(n)$ 이다,

(다) $\beta(n^+) - \alpha(n^+) = \frac{1}{2}(\beta(n) - \alpha(n))$ 이다

이 성립한다. 임의의 $e \in P_F$ 에 대하여 $N \geq \frac{1}{e}[\beta(0) - \alpha(0)]$ 인 자연수 N 을 잡으면 각 $m > n \geq N$ 에 대하여

$$\begin{aligned} 0 \leq \alpha(m) - \alpha(n) &< \beta(n) - \alpha(n) \\ &= \frac{1}{2^n}[\beta(0) - \alpha(0)] \leq \frac{1}{n}[\beta(0) - \alpha(0)] < e \end{aligned}$$

가 된다. 따라서, $\alpha: \mathbb{N} \rightarrow F$ 는 코시수열이고, 마찬가지로 β 도 코시수열이다.



이제 가정 (완3)에 의하여 α, β 는 수렴하는데, 그 극한값을 각각 a, b 라 두자. 그러면 성질 (나), (다)에 의하여 $a = b$ 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가)에 의하면, 임의의 $x \in A$ 와 $n \in \mathbb{N}$ 에 대하여 $x \leq \beta(n)$ 이므로 $x \leq b$ 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b 는 A 의 상계이다. 다른 한편으로, $e > 0$ 이면 $a - e < \alpha(n) \leq a = b$ 인 자연수 n 을 잡을 수 있는데, $\alpha(n)$ 이 A 의 상계가 아니므로 $\alpha(n) < y$ 인 $y \in A$ 를 잡을 수 있다. 그러면 $a - e < y$ 가 되어 $a - e$ 는 A 의 상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e 는 임의의 양수이므로 $a = b$ 는 A 의 최소상계임이 증명된다. 따라서, (완3)을 만족하는 순서체는 자동적으로 완비순서체가 된다.

문제 2.6.2. (완3) \implies (완1)의 증명과정에서 $a = b$ 임을 보여라. 또한, $x \leq b$ 임을 보여라.

이제, 완비순서체의 유일성을 보이려 하는데, 약간의 준비가 필요하다. 순서체 F 의 부분집합 $S, T \subset F$ 에 대하여

$$S + T = \{s + t \in F : s \in S, t \in T\}$$

라 정의한다. 그러면 다음 등식

$$\sup(A + B) = \sup A + \sup B \quad (33)$$

이 성립한다. 이를 보이기 위하여 $\sup S = \alpha, \sup T = \beta$ 라 두자. 그러면, 임의의 $s \in S, t \in T$ 에 대하여 $s + t \leq \alpha + \beta$ 이므로 $\alpha + \beta$ 는 $S + T$ 의 상계이다. 한편 $\alpha + \beta$ 가 최소상계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gamma < \alpha + \beta$ 이면 γ 가 $S + T$ 의 상계가 아님을 보여야 한다. 즉, $\gamma < \alpha + \beta$ 이면 $\gamma < s + t$ 인 $s \in S$ 와 $t \in T$ 가 존재함을 보이면 된다. 이를 위하여

$\epsilon = \alpha + \beta - \gamma$ 라 두면 $\frac{\epsilon}{2} > 0$ 이고, 따라서 $\alpha - \frac{\epsilon}{2} < \alpha$ 인데 α 가 S 의 최
소상계이므로 $\alpha - \frac{\epsilon}{2}$ 는 S 의 상계가 아니다. 따라서, $\alpha - \frac{\epsilon}{2} < s$ 인 $s \in S$
가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beta - \frac{\epsilon}{2} < t$ 인 $t \in T$ 를 찾을 수 있다. 그러면

$$\gamma = \alpha + \beta - \epsilon = \left(\alpha - \frac{\epsilon}{2}\right) + \left(\beta - \frac{\epsilon}{2}\right) < s + t$$

이므로 원하는 $s \in S$ 와 $t \in T$ 를 얻는다.

순서체의 부분집합 $S, T \subset P_F$ 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ST = \{st \in P_F : s \in S, t \in T\}$$

로 정의한다. 그러면, 등식 (33) 과 마찬가지로 다음 등식

$$\sup ST = \sup S \sup T, \quad S, T \subset P_F \quad (34)$$

이 성립한다.

문제 2.6.3. (34) 를 증명하여라.

다음 정리는 완비순서체가 본질적으로 하나밖에 없음을 보여 준다.
바꾸어 말하여 완비순서체가 두 개 있으면 이 두 순서체 사이에는 순
서체의 모든 구조를 그대로 보존하는 사상이 있다는 것이다.

정리 2.6.3. 임의의 두 완비순서체 F 와 G 가 주어지면, 전단사 함수
 $f : F \rightarrow G$ 가 존재하여 다음 두 성질

(가) 임의의 $x, y \in F$ 에 대하여

$$f(x + y) = f(x) + f(y), \quad f(xy) = f(x)f(y)$$

이 성립한다,

(나) $f(P_F) = P_G$ 이다

을 만족한다

증명: 먼저 정리 2.3.2를 적용하면, 다음 성질들

$$\begin{aligned} \gamma(r+s) &= \gamma(r) + \gamma(s), & \gamma(rs) &= \gamma(r)\gamma(s), & \gamma(P_{\mathbb{Q}}) &= \gamma(\mathbb{Q}) \cap P_F, \\ \delta(r+s) &= \delta(r) + \delta(s), & \delta(rs) &= \delta(r)\delta(s), & \delta(P_{\mathbb{Q}}) &= \delta(\mathbb{Q}) \cap P_G \end{aligned} \quad (35)$$

을 만족하는 단사함수

$$\gamma: \mathbb{Q} \rightarrow F, \quad \delta: \mathbb{Q} \rightarrow G$$

가 존재한다. 이제, 각 $x \in F$ 에 대하여

$$A_x = \{\delta(r) \in G : r \in \mathbb{Q}, \gamma(r) < x\}$$

라 정의하자. 정리 2.6.1에 의하여 F 는 아르키메데스 성질을 만족하므로, $n \cdot 1_F > -x$ 인 $n \in \mathbb{N}$ 이 있으며, 이는 $\gamma(-n) = (-n) \cdot 1_F < x$ 를 뜻하므로 $A_x \neq \emptyset$ 이다. 다시 아르키메데스 법칙에 의하여 $m \cdot 1_F > x$ 인 $m \in \mathbb{N}$ 을 잡으면 $\delta(m) = m \cdot 1_G$ 는 A_x 의 상계이다. 이제 G 가 완비순서체이므로 A_x 는 상한을 가지고, 이를 $f(x)$ 라 쓰면 f 는 F 에서 G 로 가는 함수이다. 즉, 다음

$$f(x) = \sup\{\delta(r) \in G : r \in \mathbb{Q}, \gamma(r) < x\} \in G, \quad x \in F$$

과 같이 정의된다. 두 완비순서체 F 와 G 의 역할을 바꾸어서 함수 $g: G \rightarrow F$ 도 다음

$$g(y) = \sup\{\gamma(r) \in F : r \in \mathbb{Q}, \delta(r) < y\} \in F, \quad y \in G$$

과 같이 정의한다.

먼저, (35)에 의하여, 각 유리수 $r, s \in \mathbb{Q}$ 에 대하여

$$r < s \iff \gamma(r) < \gamma(s) \iff \delta(r) < \delt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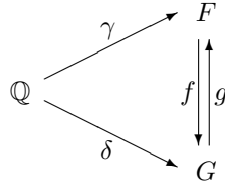
가 성립한다. 따라서,

$$\begin{aligned} f(\gamma(s)) &= \sup\{\delta(r) \in G : r \in \mathbb{Q}, \gamma(r) < \gamma(s)\} \\ &= \sup\{\delta(r) \in G : r \in \mathbb{Q}, \delta(r) < \delta(s)\} = \delta(s) \end{aligned}$$

이므로

$$f \circ \gamma = \delta, \quad g \circ \delta = \gamma$$

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 물론 $g(\delta(s)) = \gamma(s)$ 도 마찬가지로 증명된다.



이제, $f(x+y) = f(x)+f(y)$ 임을 보이는데, 함수 f 의 정의와 (33)에 의하여 $A_{x+y} = A_x + A_y$ 임을 보이면 된다. 먼저 $\delta(r) \in A_x, \delta(s) \in A_y$ 이면 $\gamma(r) < x, \gamma(s) < y$ 이므로

$$\delta(r) + \delta(s) = \delta(r+s), \quad \gamma(r+s) = \gamma(r) + \gamma(s) < x+y$$

로부터, $\delta(r) + \delta(s) \in A_{x+y}$ 임을 알 수 있다. 역으로 $\delta(t) \in A_{x+y}$ 이면 $\gamma(t) < x+y$ 이다. 정리 2.6.2를 적용하여 $\gamma(t) - y < \gamma(s) < x$ 인 $s \in \mathbb{Q}$ 를 잡으면

$$\gamma(s) < x, \quad \gamma(t-s) = \gamma(t) - \gamma(s) < y$$

로부터 $\delta(t) = \delta(s) + \delta(t-s) \in A_x + A_y$ 이다. 마찬가지로 $f(xy) = f(x)f(y)$ 임을 보이기 위하여 $x, y \in P_F$ 인 경우부터 생각하자. 이 경우, 다시 정리 2.6.2에 의하여 $A_x \cap P_F \neq \emptyset, A_y \cap P_F \neq \emptyset$ 임을 알 수 있으므로, (34)를 적용하면 되는데, 이 부분의 증명은 연습문제로 남긴다. 이제 (가)의 증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x > 0 \iff f(x) > 0$$

임을 보이자. 먼저 $x > 0$ 이면 정리 2.6.2에 의하여 $0 < \gamma(r) < x$ 인 유리수 $r \in \mathbb{Q}$ 이 존재한다. 그러면 $\delta(r) > 0$ 이고 $\delta(r) \in A_x$ 이므로

$f(x) > 0$ 이다. 역으로 $f(x) > 0$ 이면 0은 집합 A_x 의 상계가 아니다. 따라서, $\delta(r) > 0$ 인 $\delta(r) \in A_x$ 가 존재한다. 그러면 $0 < \gamma(r) < x$ 가 되므로 (가)의 증명이 끝난다.

이제 $g \circ f = 1_F$ 임을 보이려면, f 의 정의에 의하여

$$x = \sup\{\gamma(r) \in F : r \in \mathbb{Q}, \delta(r) < f(x)\}, \quad x \in F$$

임을 보여야 한다. 이는 다음 두 명제

- (1) $r \in \mathbb{Q}$, $\delta(r) < f(x)$ 이면 $\gamma(r) \leq x$ 이다,
- (2) $z < x$ 이면 $z < \gamma(r)$, $\delta(r) < f(x)$ 인 $r \in \mathbb{Q}$ 가 존재한다

를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실제로, (1)은 x 가 집합

$$\{\gamma(r) \in F : r \in \mathbb{Q}, \delta(r) < f(x)\}$$

상계임을 말한다. 한편, (2)는 $z < x$ 이면 z 는 이 집합의 상계가 아님을, 즉, x 가 최소상계임을 말해 준다.

이제, (1)을 보이자. 만일 $\delta(r) < f(x)$ 이면 $\delta(r)$ 은 집합

$$A_x = \{\delta(s) \in G : s \in \mathbb{Q}, \gamma(s) < x\}$$

의 상계가 아니라는 뜻이므로, $\delta(r) < \delta(s)$, $\gamma(s) < x$ 인 $s \in \mathbb{Q}$ 가 존재한다. 그러면, $\gamma(r) < \gamma(s)$ 이므로 $\gamma(r) < x$ 가 성립한다. 또한, (2)를 보이기 위하여 $z < x$ 라 하자. 그러면 정리 2.6.2에 의하여 $z < \gamma(r) < x$ 인 유리수 $r \in \mathbb{Q}$ 가 존재한다. 그러면 $\delta(r) = f(\gamma(r)) < f(x)$ 이므로 (2)의 증명이 끝난다.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f \circ g = 1_G$ 도 물론 성립하여 f 는 전단사함수임을 알 수 있다. \square

문제 2.6.4. 정리 2.6.3의 증명과정에서, 임의의 $x, y \in F$ 에 대하여 $f(xy) = f(x)f(y)$ 가 성립함을 보여라.

이제, 2.4절과 2.5절에서 구성한 실수체가 모두 완비순서체이고, 이들은 같은 순서체임을 알았다. 이제, 사족으로 (완1) \implies (완3)의 증

명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 절을 맺는다.⁽⁶⁾ 먼저 순서체 F 의 코시수열 $\alpha : \mathbb{N} \rightarrow F$ 가 주어졌다 하자. 도움정리 2.5.4에 의하여 수열 α 가 수렴하는 부분수열을 가짐을 증명하면 된다. 집합 $A = \{\alpha(n) : n \in \mathbb{N}\}$ 이 유한집합이면 간단하다. 이 집합 A 가 무한집합인 경우라 하더라도 정리 2.5.1에 의하여 A 는 위로 유계이고, 동시에 아래로 유계이다. 집합 A 의 하계 a_0 와 상계 b_0 를 택하고 (완3) \implies (완1)의 증명 때와 비슷하게 ‘구간’를 반으로 계속 분할해 나가는데, 집합 A 의 원소가 무한개 속하는 쪽을 계속하여 선택한다. 그러면 이 구간들의 왼쪽 끝점들의 집합은 위로 유계이고, 가정 (완1)에 의하여 상한 a 를 가진다. 또한, 이 구간들의 오른쪽 끝점들의 집합은 아래로 유계이므로 (완1) 동치인 (완2)에 의하여 하한 b 를 가진다. 그러면 (완3) \implies (완1)의 증명 때처럼 $a = b$ 가 되고, 이 원소의 근방에는 무한히 많은 A 의 원소들이 있으므로 A 의 원소들을 계속 택하여 수열을 만들어 a 로 수렴하게 할 수 있다. 이 수열이 바로 우리가 원하던 원래 α 의 수렴하는 부분수열이 된다.

(6) 상세한 증명은 참고문헌 [3], 2 장을 참조하라.